

第四篇 地名由來



古棧들녘

第四篇 地名由來

第1章 概要

1. 古棧洞 (15)

걸쭉(바라지) · 고로리(古老里) · 고잔역(古棧驛) · 너머고잔 · 당골(堂谷) · 도리섬 · 마산모퉁이 · 마실 [梅實谷] · 안터 · 원고잔(元古棧) · 적금(積金) · 전나무고개 · 질골말 · 칠반(七班) · 태봉(胎封 · 胎峯)

2. 釜谷洞 (7)

개말 [元釜谷] · 벌터 · 새마을 · 시랑골 [侍郎谷] · 신촌(新村) · 옹기마을 [店村] · 정재골 [靜齋谷]

3. 聲浦洞 (5)

계향동(桂香洞) · 독주골 [獨水谷 · 獨志谷] · 성머리 [聲頭] · 절골 [寺谷] · 점섬 [瞻星 · 占星]

4. 楊上洞 (2)

아랫보대 [下楊袋] · 윗보대 [上楊袋]

5. 瓦 洞 (7)

가자골 [佳才谷] · 뒷골 [後谷] · 동작리 (銅雀里 · 洞長里) · 새말 [新村] · 앞실 [前村] · 왜두들기 [倭蟲] · 큰고개 [大峴]

6. 月陵洞 (3)

다리피 [月入陵] · 마산모퉁이 · 부루지(富樓地 · 富老地)

7. 木內洞 (2)

능안 [陵內] · 배나무 [梨木]

8. 仙府洞 (14)

거미울 [居美谷] · 관모산(冠帽山) · 달미 [達山] · 대쟁이 [大壯] · 모골 [池谷] · 비누지 [緘裕地] ·

第四篇 地名由來

새젓골 · 석수골 [石手洞] · 소바위너머 · 쑥계 · 우산이 [宇山 · 隅山] · 장터 · 정자막골 [店幕谷 · 正芝村] · 태을(太乙)마을

9. 城谷洞(8)

골우물(古井) · 느티나무재(槐峴) · 도란말(廻村) · 무들[茂谷 · 無坪] · 벌말 · 안말[安村 · 內村] · 장가물 · 장자골

10. 新吉洞(19)

농길 · 당쟁이 [堂井] · 만해 (滿海 · 萬海) · 문화촌 (文化村) · 배나루 [船津] · 별당 (別堂) · 살막재 · 셋쌀 [新角 · 新覺] · 성안 [城內] · 신촌 (新村) · 원곡역 (元谷驛) · 장자골 [長子谷] · 갯마당 · 작은뽕골 · 큰뽕골 [船谷] · 터진목 · 풍전 (豐田) · 한터 · 횃발머리

11. 元谷洞(6)

맷골 [茅谷] · 동산골 [東山谷] · 백성말 [百姓洞] · 신흥동 (新興洞) · 양지마을 [陽谷 · 陽地] · 오지미 [奧地山]

12. 元時洞(5)

범직이 [凡直] · 시골 [時雨洞] · 옷나무골 [漆谷 · 楓谷] · 은행나무뿌리 · 전말

13. 草芝洞(15)

가나골 · 갯머리 · 더덕구지 · 둔베미 [元堂 · 元浦 · 元堂浦] · 신촌 (新村) · 옛 집터 · 원초지 (元草芝) · 작은뽕중 · 작은별망 (別望) · 작은주정 (舟井) · 큰별망 · 큰뽕중 · 큰주정 · 한학골 [閑鶴谷] · 화랑농장 (花郎農場)

14. 一 洞(6)

기와집말 (瓦村) · 석삼말 [石三村] · 아랫말 [船村] · 안골 [內谷] · 웅단말 · 주막거리 (酒幕巨里)

15. 二 洞(9)

고잔 (古棧) · 독안 · 바라지 · 붉은섬 · 양지편 (陽地便) · 역전 (驛前) · 음택이 [陰澤] · 조구나리 · 조미 [造梅]

16. 四 洞(16)

가래계 · 감자골 [柿谷] · 구라(救羅) · 긴곳 [長華] · 느진구지 [晚花串] · 뒷골 [後谷] · 막고지 [莫]

串]·분대(粉垔)·산우물(山井)·삼리(三里)·삼밭(麻田)·샘골(泉谷)·석호(石湖)·승지골(承旨谷)·초당(草堂)·항가울(杭湖)

17. 本五洞(5)

각골(角谷)·배웃(梨湖)·오목골(梧木洞)·염전(鹽田)·작은반월(小半月)

18. 八谷二洞(2)

담너미(澗圍)·갯골(間谷)

第 2 章 地名由來

第 1 節 古棧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잉화면 고잔리(安山郡 仍火面 古棧里)라 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 고잔리(始興郡 秀岩面 古棧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의거 안산시 고잔동(安山市 古棧洞)으로 되었다.

고잔동(유래 ‘원고잔’ 참조)은 행정·교육·금융·경찰 등 안산시의 중심지로 남부지역(칠반·도리섬)은 농촌지역으로 마을이 현존하며, 동부지역(태봉)은 아파트(주공 8단지)단지, 북쪽지역(마산모퉁이·결뜩·전나무고개)은 택지로, 그 중앙지역(적금·마실·원고잔)은 안산시청을 비롯하여 안산경찰서·안산시교육청·산업은행 등이 자리잡고 있다.

폐동 전 고잔동의 자연위락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결뜩(바라지) ② 고로리(古老里) ③ 고잔역(古棧驛) ④ 너머고잔 ⑤ 당골(堂谷) ⑥ 도리섬 ⑦ 마산모퉁이 ⑧ 마실(梅實谷) ⑨ 알터 ⑩ 원고잔(元古棧) ⑪ 적금(積金) ⑫ 전나무고개 ⑬ 절골말 ⑭ 칠반(七班) ⑮ 태봉(胎封)

1. 결 뜩(바라지)

일제초기 이 마을과 동작리 사이에 걸쳐 뜩(湫)을 막았다 하여 ‘결뜩’이라 불렀는데, 이 때 수문(水門)도 함께 설치해 바닷물이 나가면 바라지는 곳이므로 ‘바라지’라 부르기도 했다고 하며, 와동에서는 결뜩, 고잔동에서는 바라지라 각각 칭했다. 본래 4집(四戶)이 있었다가 1978년에 폐동된 후 택지로 조성하여 1988년부터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호성(李鎬星, 와동 125-12), 1925. 4. 6]

2. 고로리(古老里)

고잔동에서 취락이 제일 먼저 형성된 곳으로, 전나무고개 남쪽에 자리잡은 마을이었다. 이곳은 전주이씨와 광주안씨 등이 세거해 9집이 있었다가 1977년에 폐동되자 주택지로 조성되어 현재는 유신언립주택 등이 들어섰다.

[이점돈(李點敦, 와동 116), 1917. 4. 15]

3. 고잔역(古棧驛)

일제강점기인 1937년 수원↔인천간 수인철도가 부설되고 이어 고잔역사(古棧驛舍)가 건립되

있으나 얼마간 폐쇄되었다. 그후 시흥군 신통면 잠실리(현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출신 이영섭(李英燮: 제3대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고잔 간이역이 생기면서 역사주변에 민가가 들어섰다.

이 마을에 호수가 늘기 시작한 것은 고잔역과 화랑농장 사이(안산시종합운동장 예정부지)에 간척지 공사로 갯벌이 농경지로 변모되면서부터이다. 이 마을을 일컬어 일명 '다리간'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배의 왕래를 위해 수인철도부설 때 철교를 가설했기 때문이다.

[민병한(閔丙漢, 와동 117-6), 1921. 10. 25]

4. 너머고잔

원고잔 너머에 있는 마을이므로 '너머고잔'이라 불렀다. 이곳은 경주설씨가 처음으로 살기 시작했고(전설 '메실골과 청년저판' 참조) 이어 남양홍씨가 세거하면서 '홍촌(洪村)이라 불리워질 만큼 홍씨가 번성하였다.

폐동 때(1977)에는 일곱 집이 있었으며, 현재는 한양빌딩 등이 들어섰다.

[이호성(李鎭星, 와동 125-12), 1925. 4. 6]

5. 당 골(堂谷)

태봉과 마실 사이에 있었던 마을로, 폐동(1979)전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반달형 산 기슭에 당(堂)이 있었으므로 '당골'(堂谷)이라 칭했다. 이곳에는 청주한씨 선대의 묘가 있었는데 풍수로 보아 호랑이혈(虎口穴)에 해당되 청주한씨가 이 마을에 당도하기만 하면 죽었다고 한다. 그후 안산신도시개발에 따라 분묘 이장공고를 했으나 결국에는 후손이 나타나지 않아 무연분묘로 처리되었다.

당골은 해주최씨가 최초로 세거한 이래 파평윤씨, 풍양조씨, 밀양박씨 등이 세거했고, 폐동전에는 16호가 있었다가 원주민들은 대부분 와동으로 이주했다. 옛 당골마을은 현재 고등학교부지로 조성되었으며, 이곳은 교육가요 독립운동가였던 최승만(崔承萬: 1897~1984, 신동아부장, 인하대 및 제주대학장 역임) 선생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조천복(趙天福, 와동 125-3), 1936. 11. 24]

6. 도리섬

고잔역 서남쪽 논가운데에 흙사 섬처럼 생긴 마을로, 현재는 안산시 고잔1동 1동에 속해 있다.

이곳은 1910년대 고잔동을 측량할 때 고잔동에서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있을 뿐 아니라, 비만 오면 질퍽해서 화성군 남양지역을 측량할 때 실시한다고 도리시켰다 하여 '도리섬'이라 불렀다고 한다.

도리섬은 1963년에 경기도수해지구 수재민 5가구가 첫 입주한 이래, 1965년 전북 설진강 수물지구 철거민 50세대가 들어섰고, 이어 1968년까지 3년에 걸쳐 70세대가 입주해 대촌(大村)으로

第四篇 地名由來

변모되었다.

[이근식(李根植, 고잔1동 286-6), 1938. 4. 3]

7. 마산모퉁이

월피동 마산모퉁이와 경계를 이루었던 마을로, 이곳 동쪽에 있던 산이 풍수로 보아 말의 형국 이므로 마산(馬山)이라 불렀다고 하며, 마을 앞은 예전에 고잔동 주민들이 안양·안산(현 시흥시 수암동)·서울 등지를 가자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요충지여서 주막(酒幕)과 장시(場市)가 번성하자 산(마산) 모퉁이에 취락이 형성되었으나 조선말엽에 폐시(廢市)되면서 마을 또한 한층으로 전락해 폐동 때(1977)에는 5호에 불과했다. 마산모퉁이는 신도시 개발 이후 현재는 국민학교부지 및 도로로 편입되었다.

[유제일(柳在一, 와동 96), 1933. 12. 16]

8. 마 실(梅實谷)

현 안산시청 자리에 있었던 마을로, 폐동(1977)전 안산시보건소 주변과, 우남연립주택 앞에 각각 우물이 있었는데 이중 한곳이 풍수로 보아 매화꽃이 떨어지는 형국(梅花落地形局)이므로 '마실'(梅實谷)이라 불렀다. 이들 우물은 일제 때부터 고잔동에서 물맛이 좋기로 평판이 낮았는데, 일부에서는 용(龍)의 입(口)에서 나오는 물같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물맛이 특이했다. 이곳은 길지(吉地, 明堂)라 하여 예로부터 전국 각처의 내노라 하는 지사(地師, 地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며(전설 '매실골과 설총 가문에 복수한 노비아들' 참조) 구전에 따르면 어느 지사가 이곳이 천하 명당이므로 장차 큰 대궐이 들어선다고 예언하였는데, 그후 신도시가 되면서 안산시청 부지로 되었다고 한다.

당골과 원고잔 사이에 위치해 있던 마실은 전주이씨의 오랜 세거지로 모두 8호(전주이씨 3, 덕수이씨 1, 여흥민씨 1, 문화류씨 1, 기타 2)가 있었다가, 안산신도시 건설로 안산시의 자연위락중 최초로 폐동되어 원주민들은 대부분 와동으로 이주했다.

[민병수(閔丙壽, 와동 121-12), 1913. 12. 20]

[이호성(李鎬星, 와동 125-12), 1925. 4. 6]

9. 안 터

적금 동남쪽에 있던 마을로, 고잔동에서는 김터가 가장 좋았다고 한다. 이곳은 전주이씨, 김해 김씨, 청주한씨 등의 세거지로 9집이 있었다가 1977년에 폐동된 후 택지로 조성되어 1989년부터 연립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윤용현(尹龍鉉, 와동 109-5), 1924. 11. 8]

10. 원고잔(元古棧·洪村)

남양홍씨 당홍파의 집성촌이라 하여 일명 ‘홍촌말’(洪村)이라 칭했다. 마실 동쪽, 현 안산경찰서 앞에 있던 이 마을은 고전동에서는 고로리와 함께 위락이 제일 먼저 형성된 데다가 고지(串)의 안(內)쪽에 위치한 마을이므로 ‘원고잔’(元古棧)이라 불렀다.

1977년에 폐동된 원고잔은 15호가 있었고, 원주민들은 와동·사동·안양·인천 등으로 분산 이주했다.

[홍정표(洪定杓, 와동 118-11), 1935. 4. 7]

11. 적 금(積金)

이 마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이 마을에 어느 노파가 두 아들과 함께 살았다. 노파는 두 아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고개마루에 모셔오던 성황당에 1년간 치성을 드렸더니 꿈에 노승이 나타나 일러준 대로 땅속을 파니 황금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후부터 이 마을을 ‘적금’(積金)이라 부르기 시작했다(자세한 사항은 전설 ‘적금마을’ 참조)고 하며, 그후 수 많은 사람들이 마을 북쪽에 있는 산(현 안산시위수장)에 찾아와 금을 채굴하려고 파헤치기까지 하였다.

마산모퉁이 서쪽에 있던 적금은 문화류씨 한집이 있었다가 1978년 폐동되자 와동으로 이주했고, 옛 적금마을은 택지로 변모되어 1988년부터 주택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호성(李鎬星, 와동 125-12), 1925. 4. 6]

12. 전나무고개

안터와 적금사이에 위치했던 마을로 이곳 고개마루에 전나무와, 전나무 주위에 밭가 5필이 있었다가 1977년 산도시개발로 폐동된 후 주택지가 되어 현재 삼성연립주택 등이 들어섰다.

[김순봉(金順奉, 와동 175), 1922. 5. 7]

13. 절골말

밀양박씨 밀성군파의 집성촌이라 하여 일명 ‘박씨촌’(朴氏村)이라 칭하기도 했으며, 마실 서북쪽에 있었던 촌락이다. 이 마을 동쪽 산(마을에서 ‘안산’이라 칭함) 기슭에 절(절이름은 없음)이 있었으므로 ‘절골말’이라 불렀는데, 절은 1977년 폐동과 함께 폐사되고, 그후 절터에는 주택이 들어섰다. 마을의 호수는 모두 11호(일양박씨 10, 경주최씨1)로 폐동되자 원주민들은 대부분 와동으로 이주했다.

[박태보(朴泰輔, 와동 117-8), 1917. 2. 26]

14. 칠 반(七班)

마을의 지세가 풍수로 보아 고양이 혈에 해당되므로 ‘패이부리’(고양이부리)라 칭했다가, 1967년에 황해도 용진·연백 등지의 난민들이 마을 앞에 간척지공사를 실시하면서 ‘진흥촌’(振興村)으로 개칭하였다. 그후 이곳이 시흥군 수암면 고잔리 7반에 속해 ‘칠반’(七班)이라 불렀는데, 현재는 안산시 고잔1동 2봉에 속해 있다. 칠반은 너미 고잔 동쪽에 있다.

[권오술(權五述, 고잔1동 286-1), 1923. 6. 15]

15. 태 봉(胎封, 胎峯)

당골과 마실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이 마을 서북쪽 산 정상에 고려시대(?) 왕자의 태(胎)를 묻었다 하여 이 산을 태봉(胎封, 胎峯)이라 칭했고 그후 산 아래에 취락이 생기면서 산명을 따서 ‘태봉’이라 불렀다.

태봉은 파평윤씨, 풍양조씨 등 모두 11집이 있었다가 1979년에 폐등되어 현재는 주공아파트(8단지)가 들어섰다.

[윤용현(尹龍鉉, 와동 109-5), 1924. 11. 8]

第 2 節 釜谷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군내면 부곡리(安山郡 郡內面 釜谷里)와 신리(新里)였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 부곡리(始興郡 秀岩面 釜谷里)로 되었고,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따라 안산시 부곡동(安山市 釜谷洞)으로 되었다.

부곡동(유래는 ‘개멸’ 참조)은 진주유씨 누대의 세거지로, 시랑골·신촌 등 남부지역은 폐등되어 택지 및 양궁경기장·체일스포츠 등이 들어섰고, 개멸·벌터 등 북부지역은 자연취락이 현존하나 안산⇌신갈간 도로가 마을중앙을 관통하고 있다.

부곡동의 폐등 전 자연마을은 ① 개멸[釜谷] ② 벌터 ③ 새마을 ④ 시랑골[待郎谷] ⑤ 신촌(新村) ⑥ 용기마을(店村) ⑦ 정재골[靜齋谷] 등이다.

1. 개 멸(元釜谷)

용기마을 동쪽으로, 마을 남쪽에 있는 산이 풍수로 보아 가마(釜)를 엮어놓은 형국(伏釜形局)이므로 가마산(伏釜山)이라 했고, 그후 취락이 형성되자 산명을 취해 가마골이라 불렀는데, 후대에 내리오면서 ‘개멸’[元釜谷]로 통칭되고 있다.

이 마을은 진주유씨 누대의 세거지로 조선조 제14대 임금인 선조와 정빈(貞嬪) 홍씨(洪氏)의

소생인 정정옹주(眞正翁主: 1595~1666)가 동갑인 유적(1595~?)과 혼인을 하기로 약정되었으나 12세 때 시아버지 췌 유시행(柳時行: 1566~?, 교리)이 별세하자 3년상을 치렀는데 14세 때 뜻밖에 선조가 돌아가자 다시 3년상을 치른 후인 17세에 이르러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군인 유적이 몹이 허약해 25세 때 죽자 청상이 되었다. 그런데 유시행은 본래 선산인 충북 괴산군 봉촌에 예장을 치를 계획이었으나 서울에서 300리 이상이나 되는 원거리인데다가 왕가의 장지는 100리를 넘을 수 없다는 법도에 따라 이곳에 사패지로 하사받아 진유씨의 세장지로 되면서 후손들이 묘하에 살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군내면 부곡리(安山郡 郡內面 釜谷里)라 불렀던 개밀은, 마을 북쪽지역은 나무가 많아 숲이 우거진 곳이라 하여 만수동(萬樹洞)이라 부르고, 동쪽지역은 골짜기 안에 위치한 마을이므로 안골 또는 유석(柳碩: 1595~1655, 관찰사)의 묘가 농갈이 크다 하여 농안이라 칭하는데, 개밀하면 보통 농안을 지칭한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1일과 3일 사이에 길일을 택해서 마을 뒷산인 곤우봉(昆牛峯)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이곳에는 유석(柳碩) 등의 묘가 있다.

[유해업(柳海暉, 부곡동 237), 1910. 8. 7]

2. 벌터

이곳은 돌이 넓어 밭을 가는 농부가 소를 크게 꾸짖는다는 뜻으로 절우지(叱牛地, 또는 耆老地)라 불렀는데, 일제강점 초인 1910년대에 이르러 안양시 안양3동 후두미에 살던 유원형(柳元馨)이 농작(農作)을 위해 세거한 후, 개밀·시랑골 등 부곡동 거주 주민들이 분가를 하면서 호수가 늘기 시작 했다.

정재국민학교 북쪽에 위치한 벌터는 안산⇄신갈 인터체인지 예정지로 편입되었으며, 마을에서는 1986년 이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음력 10월1일~3일 사이에 길일을 택해서 개밀 뒷산인 곤우봉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유해업(柳海暉, 부곡동 237), 1910. 8. 7]

[유진형(柳晉馨, 부곡동 536-7) 1908. 11. 7]

3. 새마을

벌터와 시흥시 장상동 동막골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전쟁 직후 황해도 용진·신천 등 난민들이 정착하면서부터 취락이 이루어졌다. 그후 1970년대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취락구조가 개선되었다.

마을에서는 1986년 이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음력 10월1일~3일 사이에 개밀 뒷산인 곤우봉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유대형(柳大馨, 부곡동 534-9), 1934. 12. 6]

第四節 地名由來

4. 시랑골(侍郎谷)

이곳은 조선 조 제14대 임금인 신조의 사위이자 정경옹주의 부군인 유적의 묘가 부곡동 동쪽 산기슭(제일스포츠센터 앞)에 있는데, 유적이 생전에 이부시랑(吏部侍郎)의 관직을 역임했다하여 '시랑골'(侍郎谷)이라 칭하고 있다.

시랑골은 신촌과 양곡경기장 사이에 있던 마을로 유시행(柳時行)의 후손인 진주유씨의 세거지이다. 그후 경주이씨·평창이씨·초계정씨 등이 세거해 38가구가 있었다가 1982년 폐동되어 원주민들은 부곡동·인천·안양·여주 등지로 분산 이주했고, 현재는 택지로 조성되어 있다.

[유전형(柳晉馨, 부곡동 536-7), 1908. 11. 7]

5. 신 촌(新村)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군내면 신동리(安山郡 郡內面 新洞里)라 했다가 조선 말엽에 신리(新里)로 개칭된 마을로 시랑골과 제일스포츠센터 사이에 있다.

이곳은 개멸·시랑골 등지에 살던 유시행의 후손이 분가를 하면서 터를 잡고 살았으며, 그후 나루나씨·초계정씨·과평윤씨 등이 세거하면서 취락이 이루어 졌다. 폐동전에는 모두 26호가 있었고, 원주민들은 대부분 부곡동·인천·시흥시 장상동 등지로 분산 이주했으며, 안산신도시 개발로 폐동되자 인근의 율곡동·부곡동(시랑골·정재골 등) 이주민단지가 조성되어 1980년부터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곳에는 유시행(柳時行, 교리), 정경옹주(真正翁主, 신조 딸), 유적(柳岷, 전안위), 유영(柳穎, 응교) 등의 묘와 제일스포츠센터가 있다.

[유전형(柳晉馨, 부곡동 536-7), 1908. 11. 7]

6. 옹기마을(店村)

벌터와 개멸 사이에 있는 마을로, 한국전쟁 직후 시흥시 수암동 출신인 유일성 등이 이 마을 초입에서 옹기를 구웠으므로 '옹기마을'(店村)이라 칭하고 있다.

당시 옹기를 굽던 옹기장(鑊器匠, 도공)은 대부분 천주교인들로, 이들은 1970년대에 이르러 도시화로 옹기가 사양길에 접어들자 이곳을 떠났고, 옹기를 굽던 가마터는 현대식 가옥들이 들어섰다. 1986년 이전에는 해마다 음력 10월 1일~3일 사이에 길일을 택해서 개멸 뒷산인 관우봉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유해림(柳海暉, 부곡동 237), 1910. 8. 7]

7. 정재골(靜齋谷)

벌터와 신촌 사이에 있던 마을로, 조선 숙종 때 형조판서를 지낸 유명현(柳命賢; 1643~1703)

이 원 안산시정수장 밑에 살았다는 연고로 그의 아호를 따서 ‘정재골’(靜齋谷)이라 했으며, 그후 그의 아들 유래(柳來: 1687~?, 안동판관)가 이곳에 사당을 지은 후(월재강점 증업에 개사) 그의 후손(진주유씨)들이 세거하면서 취락이 이루어졌다.

1971년에는 당시 안산국교장(사학규)의 요청으로 후손인 유전형이 교지(校地)로 3천 5백여평을 회사에 정제국민학교가 세워져 교육의 요람지가 되었다. 정재골은 폐동(1984) 전에는 19호가 있었다가 원주민들은 대부분 부곡동 이주단지(신촌)로 이주했다.

(유전형(柳晉馨, 부곡동 536-7), 1908. 11. 7)

第3節 聲浦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군내면 성포리(安山郡 郡內面 聲浦里)와 침성리(占星里)였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 성포리(始興郡 秀岩面 聲浦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의거 안산시 성포동(安山市 聲浦洞)으로 되었다.

이곳은 어업의 전진기지로, 만선 귀항하는 어부들의 소리가 컸다 하여 성포동이라 칭했다. 성포동의 자연취락은 신도시 개발 때 모두 폐동되어 옛 성포리(성머리·독주골)는 고층아파트(에슬언아파트·주공고층아파트) 지역으로 변모되었고, 옛 침성리(첫 지명은 침성리로, 점섬·계향동·절골)는 택지로 조성되었다.

또 조선시대의 성포리는 어부들의 삶의 터전으로 바닷 내음이 물신 풍기는 곳이라면, 침성리는 실학자 성호 이익 선생이 80여년간 은둔생활로 학문을 연마하던 조용한 마을이었다. 침성리는 광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역사학자들 간에도 광주 침성리와 안산 침성리를 서로 혼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연하면 학문을 연구하던 곳은 안산 침성리(점섬리)이고, 죽어 문헌 곳은 광주 침성리인데 신도시 개발로 이들 지역이 성호 묘역 외에는 모두 택지로 조성되어 현재는 ‘성호동’(星湖洞)으로 통칭되고 있다.

폐동 전 성포동에는 ① 계향동(桂香洞) ② 독주골(獨水谷) ③ 성머리(聲頭) ④ 절골(寺谷) ⑤ 점섬(占星) 등의 자연취락이 있었다.

1. 계향동(桂香洞)

큰 향나무가 있었다 하여 ‘계향동’(桂香洞)이라 불렀고, 점섬 산등성이 너머에 위치해 있으므로 ‘등너머’라 부르기도 하였다. 점섬 아랫말과 이동 사이에 있던 계향동은 경주김씨 등 14집이 있었다가 1981년 폐동된 후 택지로 조성되었다. 폐동 전 마을에서는 도당산에서 해마다 음력 7월 1일에 산신제를 지냈다.

(이필진(李弼晉, 일동 103-6), 1920. 11. 15)

2. 독주골(獨水谷·獨志谷)

이 마을은 성머리에서는 아랫말이라 부를 만큼 성머리와 한마을이었는데, 위락이 형성되기전 가사미산 아래에 샘 우물이 하나있어 물맛이 좋으므로 성머리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했다고 한다. 그후 조선말엽에 취락이 이루어지자 우물하나 있던 곳이라 하여 '독수골'(獨水谷)이라 했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독주골'로 불리우고 있다 한다. 일설에는 이 마을의 첫 입주자인 여주이씨 후손의 시호가 '독지'(獨志)이므로 '독지골'(獨志谷)이라 칭했다고 하나 여주이씨 후손중에는 독지란 시호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폐동 때(1982) 마을의 호수는 35호로 현재는 연립주택지로 조성되어 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월 15일 경에 가사미산 중턱에서 도당제(都堂祭)를 지냈다.

[염희섭(廉喜燮, 일동 112-6), 1935. 3. 20]

3. 성머리(聲頭)

고잔동 태봉과 독주골 사이에 있던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군내면 성곶포촌리(安山郡郡內面 聲串浦村里)라 했다가, 조선말엽에 성포리(聲浦里)로 개칭되었다.

어업의 전진 기지였던 이곳은 현 스타프라자에서 서남쪽으로 3백여m, 남쪽으로 4백여m에 이르는 지역이 나무터(성머리 나무터라 칭함)로, 풍수로 보아 성포리의 머리부문에 해당되었다고 한다.

성머리는 한국전쟁 직후 사동(四洞) 구라에 포구가 설치되면서부터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자 선박의 출입이 끊겨, 어민들은 구라(사동)·배웃(본오동) 등지로 생업을 위해 떠났고, 나무터는 농경지로 변모되면서 농촌이 되었다.

여주이씨·영월신씨·과주염씨의 세거지였던 이 마을은 76호가 있었다고 1979년에 폐동된 후에 읍내아파트를 비롯하여 주공9단지·10단지로 변모되었다. 폐동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월 15일 경이면 가사미산 중턱에서 마을의 안정을 기원하는 도당제(都堂祭)를 지냈다.

[염희섭(廉喜燮, 일동 112-6), 1935. 3. 20]

[황용득(黃龍得, 성포동 354), 1944. 1. 19]

4. 절 골(寺谷)

절점 아랫말과 화림선원 사이에 있던 마을이다. 이곳은 일제 초기에 군포시 산본동에 살던 정주현씨 형제가 도당산 절 밑에 처음 세거하면서부터 취락이 이루어졌고 폐동 때(1981)는 한집이 있었다.

신도시 개발로 현재는 택지로 조성되었으며, 마을에서는 도당산에서 해마다 음력 7월 1일에

산신제를 지냈다.

[이필선(李弼善, 일동 103-6), 1920. 11. 15]

5. 점 성(瞻星·占星)

이 마을은 조선조 성종 때 병조판서를 지낸 이계손(李繼孫; 1423~1484)의 묘를 현 성호(星湖) 묘역과 수인산업도로 사이에 쓴 후 그의 셋째 아들인 이지시(李之時, 재천현감 역임)의 후손(여주어씨)들이 묘하에 살면서부터 위막이 이루어 졌고, 그후 김해김씨·밀양박씨 등이 새거 해 이상의 3성을 '점성의 삼대 성씨'라 불렀다.

이곳은 이계손의 8대손인 이익(李翼; 1681~1763) 선생이 초야에 문덕 일생을 학문에만 몰두 해 《성호사설》·《곽우록》 두 불후의 작품을 저술한 실학의 요람지이자 선각자의 땅으로,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군내면 침성리(安山郡 郡內面 瞻星里)라 했다가 조선 후기부터 점성리(占星里)로 개칭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성호선생이 이곳에서 별을 관측하였다 하여 침성(瞻星)이라 했다가 성호선생 사후(死後) 미신의 뜻이 내포된 점성(占星)으로 불리우고 있다는 것이다.

점성은 성호선생이 살던 동쪽지역을 탑(塔)이 있던 곳이라 하여 '탑골'(塔洞), 남쪽지역은 '아랫밭', 서쪽지역을 '건너밭'이라 각각 불렀고, 폐동 때(1981)에는 67호였다가 신도시 개발로 택지로 조성되어 1986년부터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폐동 전 마을에서는 마을 동남쪽에 있는 도당산(都堂山 또는 사청)에서 해마다 음력 7월1일에 산신제를 지냈다.

이곳에는 이우량(李友諒, 돈령교위), 이상선(李尙僖; 1564~1610 예조참판)의 묘가 있고, 이우인(李友仁; 1535~1594 사제감첨경), 이우직(李友直; 1529~1590 개성유수), 이상홍(李尙弘; 1559~? 문과급제) 등의 묘는 화장 또는 공주 등지로 이장되었다.

[이필선(李弼善, 일동 103-6), 1920. 11. 15]

第 4 節 楊上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군내면 양상리(安山郡 郡內面 楊上里)와 양하리(楊下里)였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 양상리(始興郡 秀岩面 楊上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따라 안산시 양상동(安山市 楊上洞)으로 되었다.

양상동(유래는 '웃보대' 참조)은 목내동과 함께 자연취락이 2개 마을(아랫보대·웃보대)에 지나지 않으며, 신도시 개발 이후에도 변모되지 않은 오지이나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이 많은 곳이다. 청동기시대의 유물인 지석묘는 11기가 있었으나 대부분 파괴되었고, 월피동과 양상동 경계 관모봉 서쪽 능선에는 적석토광묘(積石土壙墓)와 주거지가 있고 석곡역(石谷驛)은 시흥시 거모

第四節 地名由來

등에 있었다가 조선말엽에 이전되었으며, 최근에는 한양대 박물관에 의해 청주한씨(淸州韓氏)의 지석(誌石)이 발굴되었다.

1. 아랫보대(下楊垔)

웃보대 아래에 위치한 마을로 시흥시 장하동 원뒤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군내면 양하리(安山郡 郡內面 楊下里)라 칭했다.

이 마을은 웃보대에 살던 전주강씨 후손 등이 이곳으로 분가를 하면서부터 취락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동쪽지역을 '웃달', 서쪽지역을 '아랫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7월 1일이면 마을 중앙에 있는 대동우물(일명 오리물)에서 정제(井祭)를 지낸다.

이곳에는 정언벽(丁彦璧 : 1612~1652, 홍문관교리), 정시윤(丁時潤 : 1646~1713, 영월부사) 등의 묘가 있다.

[김석구(金錫九, 양상동 217), 1925. 7. 8]

2. 웃보대(上楊垔)

아랫보대 위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군내면 양상리(安山郡 郡內面 楊上里)라 칭했다.

웃보대는 마을 동남쪽에 조선중엽에 예조참판을 지낸 강징(姜澈; 1466~1536)의 묘가 풍수로 보아 퍼뜨리가 버드나무가지에 집을 짓고사는 형국(鶯巢柳枝形局)이므로, 마을 하천둑에 버드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한다. 그후부터 이 마을을 일명 '버들촌'이라 칭하기도 했는데, 일제 말엽까지만 해도 버드나무가 많았으나 주민들이 집을 짓거나 혹은 땀감으로 사용되어 버들촌이란 이름은 점차 희색되고 있다.

이 마을은 해주최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이래 김해김씨·전주강씨·사천목씨·나주정씨 등이 세거했으나, 목씨·정씨·강씨가 크게 번성했으며, 현재는 40여호가 촌락을 이루고 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7월 1일이면 주민들의 추렴으로 마을 중앙에 있는 큰우물과, 마을 북쪽 끝에 있는 용달물에서 정제(井祭)를 지내고 있다. 이곳에는 강징의 묘를 비롯하여, 강희(姜禧 : 1492~1539, 신창현감), 강의(姜儀, 적성현감), 강익(姜億 : 1498~1554, 사용원정), 강위(姜偉, 해주목사), 강종윤(姜宗胤 : 1543~?, 현감), 강면(姜桴 : 1567~1618, 병조정랑), 열녀 나주김씨(羅州金氏) 등의 묘가 있다.

[강승원(姜升元, 양상동 58), 1915. 7. 11]

第5節 瓦 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잉화면 와상리(安山郡 仍火面 瓦上里)와 와하리(瓦下里)였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 와리(始興郡 秀岩面 瓦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따라 안산시 와동(安山市 瓦洞)으로 되었다.

와동은 기와(瓦)를 굽던 와골(瓦谷)에서 유래되었고, 와골은 그후 조선 중엽 수해로 광덕산 서쪽 낙맥이 무너져 내릴 때 매몰된 후 농경지로 되었다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수암동 복지회관이 들어섰다.

와동은 신도시 개발로 자연취락이 모두 폐동되어 대부분의 지역이 택지로 조성되었는데, 폐동 전 마을은 다음과 같다.

① 가자골(佳才谷) ② 뒷골(後谷) ③ 동작리(銅雀里, 洞長里) ④ 새말(新村) ⑤ 암실(前村) ⑥ 왜두들기(倭蟲) ⑦ 큰고개(大峴)

1. 가자골(佳才谷)

마을의 지세가 아름다운 여자가 다리를 뺄고 앉아있는 형국이므로 '가자골'(佳才谷)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곳은 인조반정(1623) 후 암실에 살던 김류의 후손(순천김씨)들이 분가를 하면서 처음으로 터를 잡고 살았으며 그후 과평윤씨 등이 세거해 모두 4호 남짓한 마을이었는데 신도시개발로 1987년에 폐동해 원주민들은 대부분 와동으로 이주했으며, 현재는 택지로 조성되어 있다.

왜두들기와 동작리 사이에 위치해 있던 마을이다.

[김순봉(金順奉, 와동 175), 1922. 5. 7]

2. 뒷 골(後谷)

암실 뒤에 위치해 있으므로 '뒷골'(後谷)이라 칭했으며, 일명 '멀미'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 마을은 조선말엽에 암실과 동작리에 살던 김해김씨·인동장씨 등이 분가를 하면서부터 새거하기 시작했고, 폐동 전(1987)에는 4집이 있었다가 1989년에 안산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섰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3일을 전후해 길일을 택해서 광덕산 중턱에서 산신제를 거냈다.
[김봉순(金鳳淳, 와동 153), 1933. 11. 24]

3. 동작리(銅雀里·洞長里·防築洞)

왜두들기 북쪽에 있던 이 마을은 본래 가자골·새말을 통칭해 '동작리'라 불렀는데, 마을유래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설이 있다.

第四篇 地名由来

첫째는 마을 동북쪽에 있던 산(봉황산)이 풍수로 보아 공작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처음에는 '공작리'(孔雀里)라 칭했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동작리'(銅雀里)로 되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마을이 길게 생겼으므로 '동장리'(洞長里)라 불렀다는 것이다. 또 이 마을을 일컬어 일명 '방죽알'(防築洞)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조선말엽에 이르러 마을 서쪽에 방죽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방죽은 용동궁(龍洞宮) 소유로 내시(內侍)가 관리해 마을에서는 내시땅이라 불렀으며, 신도시개발 후 1989년에 강서여자고등학교가 들어섰다.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잉화면 와상리(安山郡 仍火面 瓦上里)라 칭했던 동작리는 와상농기(瓦上農旗)의 발상지로, 홍순철(洪淳七, 독립운동가)이 태어 난 유서깊은 고장이기도 하다.

동작리에 최초로 세거한 심씨는 남양홍씨와 인동장씨였고 그후 전주이씨 등이 세거해 남양홍씨와 인동장씨가 대성을 이루다가 폐동 때(1987)는 50여호가 있었다.

[장성두(張聖斗, 와동 474), 1918. 2. 2]

4. 새 말(新村)

큰고개 남쪽에 있었고, 동작리에 살던 사람들이 분가를 하면서 새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폐동 때(1987)는 15호 남짓였고, 현재는 택지로 조성되어 있다.

[김순봉(金順奉, 와동 175), 1922. 5. 7]

5. 앞실(前村)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잉화면 와하리(安山郡 仍火面 瓦下里)라 칭했고, 와동에서는 최초로 취락이 형성되었다. 광덕산(廣德山) 앞에 위치한 마을이므로 '앞실'(또는 앞술 前村)이라 부르고 있으며, 순홍안씨가 배관한 이래 여산송씨·김해김씨·순천김씨 등이 세거했다. 앞실은 본래 순홍안씨 선대의 땅이었는데 인조만경(1623)으로 김류(1571~1648, 영의정)가 일등공신이 되자 순천김씨의 사패지(賜牌地)로 되었다고 한다.

31호가 있던 앞실은 마을 북쪽지역을 아랫말, 남쪽지역을 웃말, 아랫말 남쪽지역을 안터라 각각 불렀고, 1987년에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 폐동된 후 와동·고잔동 등지의 이주단지가 되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3일을 전후해 길일을 택해 광덕산 산신제를 지내기도 하였으며, 이곳에는 김유를 비롯하여 김여물(1548~1592, 외주목사), 김경정(金慶徵 : 1589~1637, 강도검찰사), 김진표(金震標 : 1614~1671, 문정부도정), 김노득(金魯得, 여산군수) 등의 묘와 사세충렬문(四世忠烈門, 문화재자료 제8호)이 있다.

[김순봉(金順奉, 와동 175), 1922. 5. 7]

[김봉순(金鳳淳, 와동 153), 1933. 11. 24]

6. 왜두들기(倭蟲)

조선조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마을에 침입한 왜인(倭人)을 주민들이 합세해 두들겨 물리쳤다 하여 ‘왜두들기’(또는 왜들기)란 지명이 붙여졌다고 한다.

임(林)씨가 배관한 이래 고성어씨·안산김씨 등이 세거해 28호가 있었다가 1987년에 폐동되었고, 원주민들은 대부분 와동으로 이주했으며, 현재는 택지로 조성되어 있다. 왜두들기는 본래 암실에 속했던 마을로 암실과 동작리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마을에서는 마을 뒷산 중턱에서 해마다 음력 10월에 길일을 택해서 산신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김순봉(金順奉, 와동 175), 1922. 5. 7]

7. 큰고개(大峴)

동작리 동쪽에 위치해 있던 마을로, 가제골에서 이 마을을 가자면 큰 고개를 넘어야 했으므로 ‘큰고개’(大峴)라 불렀다.

큰고개는 파평윤씨와 고성김씨 등이 세거해 모두 7집이 있었다가 1987년에 폐동된 후 현재는 택지로 조성되어 있다.

[장성두(張聖斗, 와동 474), 1918. 2. 2]

第 6 節 月 陔 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잉화면 월피리(安山郡 仍火面 月陔里)라 칭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 월피리(始興郡 秀岩面 月陔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따라 안산시 월피동(安山市 月陔洞)으로 되었다.

월피동(유래는 ‘다리피’ 참조)은 예로부터 농토가 비옥할 뿐아니라 월피천과 안산천 등 하천이 있어 연년세세 풍년이 들어 부자가 많이 살던 곳이다. 신도시개발로 모든 마을이 폐동되어 서쪽지역(다리피)은 택지로, 동쪽지역(부루지)은 아파트단지로 크게 변모되었다. 폐동 전에는 ① 다리피(月入陔) ② 마산모퉁이 ③ 부루지(富樓地) 등의 자연취락이 있었다.

1. 다리피(月入陔)

본래의 이름은 월입피(月入陔)로, 해뜨는 언덕밭이에 위치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1논줄(현 시흥시 논곡동 논줄) 2다리피”라 칭할 만큼 안산군 관내에서는 명성이 높았던 마을이었다. 이곳은 남평문씨·파주염씨·초계정씨·풍양조씨·경주김씨 등의 오랜 세거지로 70여호 남짓되었는

第四篇 地名由來

데 마을 동쪽지역은 너미밭, 서남쪽지역은 새릿밭, 북쪽지역은 옷밭이라 각각 불렸으며, 1984년 폐동되어 주택지로 변모되어 1986년부터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1일에 마을 동북쪽에 있는 도당산에서 당제를 지냈으며, 조선시대에는 월입피죽이 유명했고, 신도시개발 이전에는 지석묘가 6기나 있었다. 이 마을은 광덕산 동쪽(東麓)에 있는 예기봉을 중심으로 원편(동북)은 도당산, 오른편(서남)은 안산이며, 광덕산에서 마을중앙인 고경부리에 이르는 지역은 용(龍)의 등이 되므로 이곳에는 집을 짓지 못하고 양편에만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정성현(鄭星憲, 부곡동 659-10), 1920. 5. 29]

2. 마산모퉁이

다리피 서남쪽 산(마산) 모퉁이에 있던 마을이다. 이곳은 조선말엽 안산시 이동에 살던 한모씨가 마산(馬山)에 있는 선대 묘를 관리하기 위해 정착하면서부터 취락이 이루어졌으며 폐동때(1985)에는 3집이 있었다. 현재는 택지로 조성되어 1989년부터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한장명(韓章命, 원곡동 756-5), 1917. 12. 12]

3. 부루지(富樓地·富老地)

다리피 동남쪽에 있던 마을로 구전에 따르면, 이 마을 남쪽에 있는 산은 가사미산(可使美山)으로 산세가 인정감을 주어 흡사 노적을 쌓은 것처럼 생겼다 하여 일명 노적봉(露積峯)이라 칭하며 뒷산(부원빌라 동쪽에 있음)은 땅의 형상을 하고 있어 말미산이라 부르고, 동북쪽에 있던 산(초계정서의 선산으로 1989년에 양궁경기장이 들어섰음)은 소의 형국이며, 이곳은 소와 말이 노적을 가득신고 끌고가는 형상이라 주민들이 근심걱정이 없을 뿐아니라 곡식이 풍족해 다락에 앉아 유유자적(悠悠自適)하며 생(生)을 영위하는 마을이라 하여 '부루지'(富樓地)라 칭했다고 한다.

일설에는 마을 서편에 월피천(月陔川)이 흘러 물이 풍부한 데다가 농경지 또한 비옥(肥沃)해 해마다 풍년이 들어 '부루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루지(富老地)란 명칭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부루지는 전주이씨·파평윤씨 등이 세거해 60여호 있었다가 1984년 폐동되어 원주민들은 대부분 부곡동으로 이주했고, 현재는 현대아파트·부원빌라·시온성교회 등이 들어섰다.

[이명돈(李明敦, 와동 263-2), 1908. 8. 2]

第 7 節 木內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와리면 이목리(安山郡 瓦里面 梨木里)과 능내리(陵內里)였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군자면 목내리(始興郡 君子面 木內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따라 안산시 목내동(安山市 木內洞)으로 되었다.

목내동은 이목동(梨木洞, 배나물)의 '목'(木)자와 능내리(陵內里, 능안)의 '내'(內)자를 따서 '목내동'(木內洞)이라 칭했다. 이곳은 일찍이 조선초기 비운의 임금인 단종의 생모(현덕왕후)의 묘를 능안에 쓴 후부터 널리 알려졌다가, 신도시개발로 ① 능안(陵內)과 ② 배나물(梨木) 등 2개의 자연취락이 폐동된 후 각종 공장이 들어서서 토박이들도 어디가 어딘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변모되었다.

1. 능 안(陵內)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와리면 능내리(安山郡 瓦里面 陵內里)라 칭했으며, 배나물 북쪽에 있던 마을이다. 전주이씨를 비롯하여 경주최씨·김해김씨·금녕김씨 등이 세거해 80여호가 살던 대촌(大村)으로, 마을 북쪽지역은 웃말, 남쪽지역은 아랫말이라 각각 불리우다가 1979년 폐동되었고 주민들은 대부분 원곡동으로 이주했으며, 현재는 반월공업단지로 조성되어 각종 공장이 들어섰다.

'능안'(陵內)이란 마을명칭은 조선조 문종의 비(妃)이자 단종의 생모(生母)인 안동권씨(현덕왕후)의 묘를 아랫말과 성곡동 무릎사이(안산시 목내동 산 47)에 썼기 때문인데, 이 능은 세조 때에 이르러 파괴되었고, 중종(?) 때 양주 현릉(顯陵)으로 천장하였다. 능터(陵址)는 광복 후 어느 인사가 묘를 썼으며, 이곳에서 호상(虎象) 1쌍이 출토되어 현재 이화여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 1981년 7월 조모가 이곳에서 출토된 난간석주(欄杆石柱)를 밀반출하려다가 적발되었고, 이듬해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경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학술조사가 실시되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1일에 웃말 소재 도당산 정상에서 도당제를 지냈다.

[이순옥(李順玉, 원곡동 794-6), 1909. 8. 21]

2. 배나물(梨木)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와리면 이목리(安山郡 瓦里面 梨木里)라 불렀다. 구전에 따르면 조선조 제6대 임금인 단종의 생모 현덕왕후의 묘가 능안에 있었는데 이를 세조가 파괴해 왕후의 묘가 능안 아랫말과 웃말 사이에 있는 우물에 까지 닿았다 하여 권우물(楡井)이라 칭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배나물'로 되었다고 한다. 또 이곳에 들배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 배나무가 '배나물'로 되었다는 설도 있다.

第四編 地名由來

관우물은 마을의 대동우물로 이 물을 마시면 얼굴이 희어지고 살결이 부드러워진다고 하여 부녀자들이 많이 마셨다고 한다. 농안 서쪽에 위치해 있던 배나무는 전주이씨·안동김씨 등의 세거지로 남쪽지역은 큰말, 북쪽지역은 작은말이라 각각 불렸으며 폐동 때(1979)는 60여호가 있었고, 현재는 반월공단지역으로 변모되었다.

[어경복(李慶福, 원곡동 791-15), 1913. 9. 20]

第 8 節 仙府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대월면 선부리(安山郡 大月面 仙府里)와 달산리(達山里)였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군자면 선부리(始興郡 君子面 仙府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따라 안산시 선부동(安山市 仙府洞)으로 되었다.

선부동은 선녀골에서 유래되었으며(전설 ‘선부리의 유래’ 참조)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관내에서 최초로 장시(산대장)가 있을 만큼 부적대던 곳이다. 특히 안산의 관적성씨중 안산김씨 후손중에 김맹전(金孟鉉, 사재감정 역임)의 묘를 석수골에 쓴 후 그의 후손들이 세거하면서 안산에 안산 성씨의 뿌리를 내렸다 한다. 뿐만아니라 안산의 인맥중 가장 번성했던 파평윤씨 소장공과 후손들의 주세거지이기도 하다.

선부동은 대정어·태을마을·우산이 등 북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동되었으며, 폐동 전 선부동의 자연취락은 다음과 같다.

- ① 거미골(居美谷) ② 관모산(冠帽山) ③ 달미(達山) ④ 대정어(大壯) ⑤ 모골(池谷) ⑥ 비누지(緝糶地) ⑦ 새것골 ⑧ 석수골(石手洞) ⑨ 소바위너머 ⑩ 쪽계 ⑪ 우산이(隅山) ⑫ 장터 ⑬ 정지막골(正芝村) ⑭ 태을(太乙)마을

1. 거미골(居美谷)

모골 북쪽으로, 남양홍씨를 비롯하여 동북오씨·전주이씨·풍양조씨 등 9가구가 있었다가 1985년에 폐동해 원주민들은 대부분 원곡동으로 이주했고, 마을이 있던 지역은 시화지구 이주민 단지로 조성되었다.

이곳은 물이 풍부할 뿐 아니라 농토 또한 비옥해 살기좋은 곳이므로 ‘거미골’(居美谷)이라 칭했다고 한다.

[이규석(李揆奭, 선부동 주공APT 427-305), 1909. 2. 21]

2. 관모산(冠帽山)

관산국민학교 뒷산이 관모(冠帽, 관리가 쓰는 계모)처럼 생겨 관모산(冠帽山)이라 불렀는데, 이산 서쪽기슭에 마을이 형성되자 산명을 취해 '관모산'(冠帽山)이라 칭했다. 이 마을은 원주이씨를 비롯하여 피씨·진주강씨 등이 세거해 24가구가 있었다가 1983년 폐동돼 원주민들은 대부분 원곡동으로 이주했으며 현재는 선부동 6단지(주공아파트 4~5단지 주변)로 변모되었다.

관모산은 마을 중앙에 있던 대동우물을 중심으로 북쪽지역(현 주공아파트 5단지 지역)은 아랫말, 남쪽지역(현 주공아파트 4단지 지역)은 웃말이라 각각 불렀으며, 폐동 전만해도 해마다 음력 7월 7일 대동우물에서 정제(井祭)를 지냈다.

[김영환(金永煥, 원곡동 749-4), 1928. 10. 15]

3. 달미(達山)

비누지 동쪽으로,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대월면 달산리(安山郡 大月面 達山里)라 칭했다. 이곳은 교동의 요충지로 동쪽은 시흥시 화정동, 서쪽은 시흥시 기모동, 남쪽은 와동, 북쪽은 시흥시 능곡동 등을 왕래하는 사통팔달(四通八達)된 곳에 위치한 마을이므로 '달미'(達山)라 불렀다.

달미는 피씨를 비롯해 나주나씨·진주강씨·순흥안씨·교하노씨 등이 세거해 마을 동쪽지역은 건너말, 남쪽지역은 아랫말, 북쪽지역은 웃말이라 각각 칭했다. 이곳에는 모두 32호가 있었다가 1985년에 폐동해, 원주민들은 대부분 선부동·원곡동으로 분산 이주했으며, 마을이 있었던 지역은 택지로 조성돼 1988년부터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노수룡(盧洙龍, 원곡동 783-6), 1916. 12. 15]

4. 대쟁이(大壯)

이곳은 예전 군사 주민들이 서울·인천·안양 등지를 가자면 반드시 거쳐야 할 만큼 교동의 요충지여서 왕래하는 행려자가 많아 주막(酒幕)이 번성하였다. 새것골과 태울마을 사이에 있는 대쟁이는 마을의 지세가 풍수로 보아 대장형국(大壯形局)이라고 하며, 남평문씨 등이 오랫동안 살아온 마을이다.

[구본창(具本昌, 선부동 157-1), 1935. 11. 1]

5. 모골(池谷)

관모산 북쪽에 있었으며, 함양박씨의 오랜 세거지였다. 구전에 따르면 조선시대 어느 부자가 이 마을에 살았는데 집앞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그후 부자가 폐가(敗家)하자 연못이 눈으로 변모해 못배이라 불렀고, 마을이름 또한 연못이름을 따서 '모골'(池谷)이라 불렀다.

第四編 地名由來

이 마을은 동남쪽지역을 안산모래이, 남쪽지역을 셋터, 서쪽지역을 모골이라 각각 칭했으며, 선부동에서는 예로부터 모골·석수골·거미울·정지막골을 북촌(北村), 관모산을 남촌(南村)으로 각각 불렀다.

모골은 예로부터 호수가 10호를 넘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다. 어쩌다 외지에서 한 가구가 입주하면, 다른 한 가구가 마을을 떠나곤 해 폐동 때(1985)도 9호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는 선부동 이주단지로 조성되었다.

[민찬기(閔讚基, 고잔2동 532), 1921. 9. 17]

6. 비누지(斌裕地)

정지막골 동쪽에 있었던 마을이다. 조선시대에는 배가 들어왔다 하여 '배다리'라 불렀다고 한다. 이 마을은 풍수로 보아 선비가 태어날 땅이란 뜻으로 빈유지(빈裕地)라 칭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비누지'로 불리우고 있다 한다.

비누지는 안산김씨·진주강씨·과평윤씨 등이 세거했으며, 특히 남쪽지역은 저너머라 불렀다. 폐동(1985)전에는 16호가 있었다가 원주민들은 대부분 원곡동으로 이주했으며 마을이 있었던 지역은 현재 주택지로 변모되었다.

[윤승모(尹承模, 선부동 525), 1934. 9. 7]

7. 새젓골

대쟁이 북쪽에 있다. 조선시대 새우젓을 실은 배가 이곳에 닿았다 하여 '새젓골'이라 부르고 있으며, 마을이 형성되기는 1960년대에 이르러 대쟁이 출신 남평문씨가 처음 세거하면서부터이다. 현재는 광원황씨 한집이 있다.

[윤왕열(尹旺烈, 선부동 224), 1939. 1. 5]

8. 석수골(石手谷)

거미울 동쪽으로 안산김씨(또는 연성김씨)의 세거지이다. 이곳은 조선조 태종 때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연성군(蓮城君)에 봉해진 김경경(金定卿: 1345~1419)의 손자인 김맹전(金孟鉉, 사재감정을 역임)의 묘를 쓸 때 묘앞에 설치할 빗돌(碑石)을 배에 싣고 와서 석수장이들이 돌을 깎아 석물(石物)을 새웠다고 한다. 그후 그의 후손(안산김씨)이 묘하에 살면서부터 촌락이 이루어 졌다.

폐동 때(1985)에는 12호가 있었는데, 이들 원주민들은 대부분 원곡동으로 이주했으며, 그후 석수골은 딱지로 조성되어 1988년부터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김맹전 묘 서쪽은 국민학교 부지로 조성되어 있다. 석수골에는 김맹전의 묘를 비롯하여 김건수(金乾壽, 부사과 역임), 홍처윤(洪處尹, 황해도 관찰사) 등의 묘가 있다.

[김영(金穰, 원곡동 793-18), 1921. 11. 27]

9. 소마위너머

일제 때 시흥시 거모동·군자동·죽윤동·정왕동 주민들이 군자역전에서 생산된 소금을 소갈마에 실고 군자 구준물과 대쟁이 사이 마루턱에 있는 바위에다 짐을 내려놓고 쉬어갔다 하여 '소마위너머'라 칭하고 있는데, 광복 후 한집이 있었다가 한국전쟁 직후 폐동되었다.

[윤왕열(尹旺烈, 선부동 224), 1939. 1. 5]

10. 쑥 계

달미와 시흥시 화정동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조선말엽에 최참봉(崔參奉)이란 자가 처음 살았다고 하며, 최참봉이 살던 집은 일제강점기에 시흥시 수암동과 거모동 사이 도로확장공사 때 헐렸으며 현재의 민가(5가구)는 일제말엽에 생긴 것이다.

이곳은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쑥 들이 간 갯고랑 가장자리에 있는 취락이란 의미로 '쑥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노수룡(盧洙龍, 원곡동 783-6), 1916. 12. 15]

11. 우산이(宇山·隅山)

안산신도시개발 이전 군자면 관내에서는 제일 높은 지대에 자리잡은 마을이었다. 이곳은 동쪽에는 오봉산, 남쪽에는 안산 등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좁은 우산같이 둥근 지형안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우산'(宇山)이라 칭했다는 설과 산 모퉁이에 있는 마을이므로 '우산'(隅山)이라 한다는 설이 구전되고 있다.

우산이는 제주고씨를 비롯하여 남평문씨·경주김씨·전주이씨·파평윤씨 등이 세거해 왔으며, 예전에는 대쟁이를 아랫말, 우산이를 웃말 이라 부를 만큼 대쟁이와 한마을로 통칭되었다. 대쟁이 동북쪽에 위치한 우산이에는 윤강, 윤상형(尹尙衡: 1680~?, 문화현령) 등의 묘가 있다.

[윤왕열(尹旺烈, 선부동 224), 1939. 1. 5]

12. 장터

조선시대 안산군 관내에서 최초로 장시가 형성된 곳으로, 주로 해산물과 농산물의 거래가 많았고 장날(5일, 10일)이면 씨름이 유명했다고 한다.

구전에 따르면 장터 서쪽에 있는 산은 전쟁이 나면 적은 물리치는 형국이고, 동쪽에 있는 산은 패잔병이 쫓아가는 형국인 데다가 장시가 바닷가에 위치해 주민들이 거세어 번성하지 못하고 일제초에 폐장되었다고 한다.

장터는 장시(山堡場이라 칭함)와 함께 생긴 마을로, 1985년 폐동되어 현재는 안산전철역과 연계되는 도로로 변모되었다. 석수골 서쪽으로 시흥시 거모동과 경계를 이루었던 마을이다.

[김영(金樞, 원곡동 793-18), 1921. 11. 27]

13. 정지막골(店幕谷·正芝村)

비누지의 거미울 사이로, 현재 선부동 은행나무 주변에 있었던 마을이다. 구전에 따르면 조선 말엽에 마을 중앙에서 오지그릇을 구워 처음에는 '점막골'(店幕谷)이라 칭했다가, 그후 민가가 생기면서 취락이 형성되자 '정지막골'(正芝村)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정지막골은 함양박씨의 오랜세거지로 10여호 있었다가 1985년 폐동되어 원주민들은 대부분 원곡동으로 이주했으며, 현재는 연립주택이 들어섰다. 이곳엔 일제말엽에 와동출신 장성두(張聖斗, 1918년생)씨에 의해 흑연광(명칭, 시흥흑연광업소)이 발견되었고 인천출신 이영태씨가 첫 채광을 실시했다.

[민찬기(閔讚基, 고잔2동 532), 1921. 9. 17]

14. 태을(太乙)마을

태을산(太乙山) 아래에 있는 마을이므로 '태을(太乙)마을'이라 칭하며, 창원황씨가 처음 세거했다. 대생이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현재 대한조경공사와 민가 2집이 있다.

[구본창(具本昌, 선부동 157-1), 1935. 11. 1]

第9節 城谷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와리면 성두리(安山郡 瓦理面 城頭里)와 무곡리(茂谷里)였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군자면 성곡리(始興郡 君子面 城谷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따라 안산시 성곡동(安山市 城谷洞)으로 되었다.

성곡동은 성두리(갯머리)의 '성'(城)자와 무곡리(무들)의 '곡'(谷)자를 취한 것으로, 성두리는 갯머리(城頭)라 하여, 골우물·별말·안말·도란말을 총칭해 부르고 있는데, 이는 도란말에 있는 성황당을 신성시하여 주변에 성(城)을 쌓고 마을 주민들이 대대로 신앙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한다. 안산에 전래되었던 동계가 폐동과 함께 사라졌지만 이곳의 동계(성황계)는 폐동 후에도 전국 각처에 살던 주민들이 해마다 윤력 10월 1일이면 이곳에 모여 제를 지낸다. 1989년 11월 1일에도 안산문화원(원장 정봉진) 주최로 성대하게 거행된 바 있다.

갯머리 외의 지역은 무들(茂谷里, 장가물·장자골·느티나무재 포함)로 이들 모든 마을은 신도시 건설 때 폐동된 후 현재는 유수의 공장이 들어섰다. 폐동 전 성곡동의 자연취락은 다음과 같다. ① 골우물(古井) ② 느티나무재(槐峴) ③ 도란말(題村) ④ 무들(茂谷·無坪) ⑤ 별말(坪村) ⑥ 안말(安村·內村) ⑦ 장가물 ⑧ 장자골

1. 골우물(古井)

안팎과 목내동 배나무 사이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다. 이곳 북쪽에 있는 골짜기에 이(齒)가 시릴 정도로 찬 우물을 중심으로 촌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밀양박씨·전주이씨 등의 세거지였던 골우물은 모두 18호가 있었다가 1986년에 폐동된 후 반월공업단지로 조성되어 현재는 유장양행·서울화학·극동봉제·삼양통상·(주)진도·광성피혁 등이 들어섰다.

이곳에는 안탄대의 묘(기념물 제83호)를 비롯하여 이잠(李潛, 풍해군), 이영번(李永蕃, 동덕량) 등의 묘가 있다.

[김형덕(金炯德, 선부동 99번리 9-8), 1916. 3. 4]

2. 느티나무재(槐峴)

무들과 능김사이 고갯마루에 느티나무가 있었으므로 '느티나무재'(槐峴)라 칭했다. 이곳에는 밀양박씨·파평윤씨 등 5호 가람 있었다가 1986년에 폐동되자 반월공업단지 서편 중심도로로 편입되었다.

[허의강(許義康, 원곡동 791-4), 1940. 10. 9]

3. 도란말(漣村)

해안가에 위치했던 마을로,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곳에 이르러 급히 돌아감으로 '도란말'(漣村)이라 불렀다고 한다.

해봉산 동남쪽에 있던 도란말은 금녕김씨·남양홍씨 등의 세거지였으며 폐동 때(1986)에는 20여호가 있었다가 신도시 개발로 반월공업단지로 조성되어 현재는 강남화설·한국농약·한독약품·태양연마·현일향료 등이 들어섰다.

이곳에는 흥명원(洪命元; 1573~1623 경기도관찰사)·홍소지(洪小姐, 효녀)·홍우악(洪禹岳, 하양원감) 등의 묘가 있다.

[김왕산(金旺山, 선부동 99의 4-1), 1910. 10. 3]

4. 무들(茂谷·無坪)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와리면 무곡리(安山郡 瓦里面 茂谷里)라 불리웠던 마을이다. 제주고씨를 비롯하여 금녕김씨·파평윤씨·양천허씨 등이 세거해 파평윤씨가 대성이었고, 호수는 35호 가람되었다. 이곳은 들이 없는 마을이라 하여 '무들'(無坪)이라 칭했고, 마을의 남쪽지역을 큰무들, 북쪽지역을 작은무들, 동쪽지역은 목내동 능안 너머에 있으므로 능너머라 각각 불렀다.

무들 출신중에 일제하 암울했던 시기에 직선가로 유명했던 윤종대(尹鍾大)란 사람이 있었다. 2천석 지기의 부호였던 그는 마을주민들중 사망한 유가족에게는 쌀 3말과 탁주 5동, 출산한 산

第四編 地名由來

모에게는 쌀 1말과 미역 3냥, 추석 때는 전 주민들에게 가족수가 많으면 쌀 3되 적으면 2되, 설날이면 가가호호에 쌀 1말씩을 나누어 주었다. 또 부모 묘소에 매일 성묘해 손과 무릎이 닿던 곳에 풀이 안날 만큼 이름난 효자였다. 광복 후 사망하자 전국의 길인들이 장례를 치렀던 만큼 구휼에 힘써 모든이에게 귀감이 되었다.

이 마을에는 안산전래의 토속신앙인 성황당이 있다. 이곳에서는 벌말·골우물·도란말·안말 등 갯머리 주민들이 해마다 음력 10월 1일 ‘갯머리 성황제’(城頭里 城際祭)를 지냈다. 조선 숙종 때 우의정을 지낸 윤지완(尹趾完)이 “그까짓 성황이 뭐 용하나”고 했다가 성황님(?)의 노여움을 사 일각(一脚) 정승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벌말 동쪽에 있던 무들은 신도시개발로 1985년에 폐동된 후 반월공업단지로 조성되어, 현재 큰무들에는 대현모방, 작은무들에는 아남정밀, 농너머에는 아성유리·(영)영신 등이 들어섰다.

[윤동만(尹東萬, 원곡동 794-6), 1932. 10. 15]

[허의강(許義康, 원곡동 791-4), 1940. 10. 9]

5. 벌 말[坪村]

무들과 안말사이 허허벌판에 있던 마을이다. 이곳은 조선중엽에 금녕김씨 중의공파 후손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이래 전주이씨 등이 세거해 11호 남짓한 마을(그중 9집이 금녕김씨)이었는데, 신도시개발에 따라 1986년에 폐동된 후 반월공업단지로 조성되어 현재는 동아건설·삼천리열처리·대흥화학·남강제약·삼양금속 등이 들어섰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1일이면 해봉산 정상에서 성황제를 지낸다.

[김형덕(金炯德, 선부동 99브릭9-8), 1916. 3. 4]

6. 안 말[安村·內村]

이 마을 유래에 대해 3가지 설이 있는데, 그 첫째는 순흥안씨가 처음 세거해 ‘안말’(安村)이라 했다는 설, 두번째는 오목한 골짜기에 자리잡아 ‘안말’(內村)이라 칭했다는 설, 세번째는 오목한 골짜기에 순흥안씨가 처음 살아 ‘안말’(內村·安村)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골우물 서북쪽에 위치해 있었던 안말은 남북으로 길게 생긴 마을로, 남쪽지역은 웃말, 북쪽지역은 아랫말이라 각각 불렸으며, 순흥안씨 이래 밀양박씨·파평윤씨·제주고씨·대구배씨 등이 세거해 31호가 있었다가 1986년에 폐동되었다. 그후 반월공업단지로 조성되었고 현재는 유진화학·상진개발·대성합성화학·대화페인트·서해공업 등이 들어섰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1일에 해봉산 정상에서 성황제를 지낸다.

[박용석(朴容奭, 선부동 994-10), 1916. 11. 25]

7. 장가물

무들 동남쪽에 위치해 있던 마을로 물이 많은 곳이라 하여 '장가물'이라 불렀다. 이 마을은 일제 때 증천임씨가 처음으로 살았고 그후 제주고씨의 한집이 있었다가 1985년에 폐동되어 반월공업단지로 조성된 후 현재는 한국카본·신성기업 등이 들어섰다.

[허의강(許義康, 원곡동 791-4), 1940. 10. 9]

8. 장자골

큰무들 동북쪽으로, 조선말엽에 파평윤씨가 부자로 살았다 하여 '장자골'이라 불렀으며, 그후 (일제초기) 폐동되어 농경지로 변모되었다가 신도시개발에 따라 반월공업단지로 조성되어, 현재는 로켓트 카본이 들어섰다.

[허의강(許義康, 원곡동 791-4), 1940. 10. 9]

第 10 節 新吉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와리면 신각리(安山郡 瓦里面 新角里)와 적길리(赤吉里)라 칭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군자면 신길리(始興郡 君子面 新吉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따라 안산시 신길동(安山市 新吉洞)으로 되었다.

신길동은 신각리(新角里, 현 셋뽕마을)의 '신'(新)자와 적길리(赤吉里, 현 능길마을)의 '길'(吉)자를 취한 것으로 안산시의 법정동중 자연취락이 가장 많은 곳이다.

이곳은 별당·성안·봉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취락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신도시개발로 폐동 후에는 공장이 세워졌지만, 시화지구사업 때는 수 많은 유적지가 폐허화되었다. 예컨대 조선시대 임금께 진상하는 조기를 저장하던 '사용원 분원'과, 조선 초기에 설치된 '무용고리 봉화대' 등은 불도저에 밀려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폐동전 신길동의 자연취락은 다음과 같다.

① 능길 ② 당정(堂井) ③ 만해 ④ 문화촌(文化村) ⑤ 배나루(船津) ⑥ 별당(別堂) ⑦ 살막재 ⑧ 셋뽕(新角, 新覺) ⑨ 성안(城內) ⑩ 신촌(新村) ⑪ 원곡역(元谷驛) ⑫ 장자골(長子谷) ⑬ 작은배골(船谷) ⑭ 갯마당 ⑮ 큰배골(船谷) ⑯ 터진목 ⑰ 풍전(豐田) ⑱ 한티 ⑲ 뒷머리

1. 능 길

조선초기에 이 마을 서남쪽 봉화재산 정상에 봉화대(烽火臺, 무용고리 봉수라 칭함)를 설치했다 하여 적길리(赤吉里)라 칭했다가, 그후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의 묘를 목내동 능안에 쓴 후

第四章 地名由來

부터는 능(陵)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이란 뜻의 ‘능길’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만해 북쪽에 있는 능길은 곡부공씨가 처음으로 터를 잡은 이래 경주김씨·순흥안씨·김해김씨·진주강씨 등이 세거해 현재는 경주김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으며, 마을 서쪽지역은 바라지, 북쪽지역은 골안, 마을 중앙은 큰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3일이면 골안 뒷산 도당터에서 도당제를 지낸다.

[김수옥(金洙玉, 신길동 450), 1925. 4. 14]

2. 당쟁이(堂井)

본래 성안이에 속했던 마을로, 성안이 서쪽에 위치해 있었다. 이 마을은, 일제 초기에 시흥시 군자동 산뒤(山北)에 살던 신현보(申鉉輔)가 분가를 하면서 처음으로 살 때 집 하나에 우물(우당샘) 하나가 있었다 하여 ‘당쟁이’(堂井)라 칭했으며, 폐동 때(1985)는 2집(신동석·김한민)이 있었다.

[신동석(申東錫, 선부동 994-12), 1922. 6. 11]

3. 만 해(滿海·萬海)

본래 능길에 속했던 지역으로 능길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광복 후 최승구(崔承九)가 처음으로 살았으며, 한국전쟁 직후 황해도 옹진·연백 등지의 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취락이 이루어졌다. 마을유래에 대해 2가지 설이 구전되고 있는데, 첫째는 조선시대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곳이 지대가 앞으로 물이 가득차다 하여 ‘만해’(滿海)라 칭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마을 남쪽에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할 조기를 저장하는 사용원 분원이 있어 만인(萬人)이 들끓었는데 그후 서해안의 간척지 공사로 바닷물이 짙기자 농경지로 변모되어 ‘만인해들’이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만해’(萬海)로 불리우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초에 길일을 택해서 마을 남쪽 끝에 있는 봉황재산 정상에서 당제를 지내고 있다. 이곳에는 윤지상(尹趾祥, 통덕량)의 묘가 있다.

[안진호(安鎭濤, 신길동 388), 1936. 5. 23]

4. 문화촌(文化村)

이 마을은 화성군 우정면 출신 김모가 큰뱅골에 있다가 광복 직후부터 살기 시작했고, 이어 1971년 서울 개봉동 하천변에 살던 주민들이 수해로 인해 4집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호수가 늘기 시작해 현재는 모두 11집이 있다. 신도시 개발전 군자면 관내에서는 제일 빈촌이었던 이곳은 1970년대 초에 이르러 마을의 분위기를 일신시키자는 주민들 의사에 따라 ‘문화촌’(文化村)으로 명명되었다.

[이향노(李享魯, 신길동 741), 1930. 7. 25]

5. 배나루(船津)

일제 때 순환안씨가 배관한 이래 광복 후 호수가 늘어 현재 4집이 살고 있다. 예전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마을 서북쪽 산 모퉁이에 배가 정박했다 하여 '배나루'(船津)라 불리우고 있다. 터전북 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강명현(姜明賢, 신길동 440), 1915. 2. 8)

6. 별 당(別堂)

안산역(安山驛) 서남쪽에 있었던 마을로, 풍전과 함께 해주정씨(海州鄭氏)가 처음으로 세거했다. 별당의 유래는 풍전에 살던 주민(주로 해주정씨)들이 별도로 집을 짓고 살아 '별당'(別堂)이라 했다는 설과, 조선중엽 어느해인가 여러해 동안이나 비가 안와 가뭄이 극심하자 임금이 안산당상태미(현 선부동 산대장터 부근)에 이르러 갈증이 나자 물을 마시고 이곳에 이르자 다른지역의 농작물들은 가뭄 때문에 시들시들했으나 이곳의 농작물은 한결같이 싱싱하여 이에 임금이 "별당이구나"해 그후부터 '별당'이라 했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별당'(別堂)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광복 직후까지만 해도 해주정씨 7가구가 살아오다가 1950년대초부터 타성이 세거하기 시작했다. 안산신도시 건설로 1979년 폐동되자 일성신약·조선부약·서울식품 등의 공장이 들어섰다.

(정명근(鄭命根, 원곡동 758-9), 1032. 5. 10)

7. 살막재

만해 서남쪽으로 주식회사 장천(長川) 반월공단 서쪽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시흥군에서 신길리의 공동묘지를 조성했다가 광복 직후 서울출신 최송구(崔承九)가 처음 입주했고 이어 그의 처남인 송(宋) 모가 최씨집 옆에 살다가 1970년대 방죽건설로 폐동되었다. 현재 살막재와 만해사이에 민가 한채가 있다.

'살막재'란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할 조기를 어부살(살막재에서 서쪽으로 약 3~4km지점)에서 잡아 이곳 빙고(氷庫)에 저장했던 곳이란 뜻이며 마을에서는 보통 '평고(氷庫)구멍'이라 부르고 있는데 본래의 이름은 사옹원 분원(司饔院 分院)이다.

(강명현(姜明賢, 신길동 440), 1915. 2. 8)

8. 셋 팻(新角·新甓)

능길과 시흥시 거모동 도일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와리면 신각리(安山郡 瓦里面 新角里)라 칭했다.

이 마을은 풍수로 보아 소의 뿔처럼 생겼으므로 '셋팻'(新角)이라 불렸으며, 일제 때 경길섬

第四篇 地名由來

(丁吉變, 정봉진 안산문화원장 조부)이 이곳에 신흥학교(新興學校)를 설립하면서 새 학문을 익혀 깨달아야 잘 살 수 있다는 의미로 깨달을 '각'(覺)자를 따서 '새빨'(新覺)로 개명했다고 한다. 새빨은 조선시대에는 염밭(鹽田)으로 유명했으며, 신도시개발 전 근자면 관내에서는 자연취락종호수가 가장 많았다.

이 마을에 처음 배편한 성씨는 회덕송씨로 알려졌으며, 그후 나주정씨·황씨·김해김씨 등이 새겨졌고, 현재는 김해김씨와 나주정씨가 대성을 차지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곳 뒷산 정상에서 해마다 음력 7월이면 길일을 택해 산신제를 지냈다.

[정규창(丁奎昌, 신길동 582), 1915. 4. 9]

9. 성 안(城內)

목내산성(木內山城) 안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성안'(城內)이라 칭했다. 이 마을은 안동권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패동 때(1979)는 20여호 남짓했다. 본래 풍전에 속했던 마을로, 현재 한국전력 변전소 등이 들어섰다.

[정규명(丁奎明, 신길동 778), 1918. 3. 25]

10. 신 촌(新村)

이 마을은 일제 중엽에 큰뽕골로 살던 주민들이 분가하면서 새로 이룩한 마을이라 하여 '신촌'(新村)이라 불렀으며, 이어 한국전쟁 직후 난민들이 새겨해 4집이 있었다가 1970년대초에 원곡역과 시흥시 거동동 도일 사이의 도로확장에 따라 폐동되었다. 신촌은 원곡역과 문화촌 사이에 있었다.

[이항노(李亨魯, 신길동 741), 1930. 7. 25]

11. 원곡역(元谷驛)

원곡역(元谷驛) 주변에 자리잡은 마을로, 1937년 경동철도주식회사(京東鐵道株式會社)에 의뢰수인선(水仁線)이 부설될 때 원곡역사(元谷驛舍)를 현 안산역 자리에 건립하려다가 그곳이 고개말이라 경사였으므로 현재의 위치인 신길동 지역에 건립했다고 한다. 이곳은 본래 오음방죽(五音防築)이 있어 지대가 앞으로 작은뽕골 뒷산에 뚝을 손수레에 실어다가 매립해 역사를 건립했고, 마을 또한 원곡역이 영업을 개시하면서 함께 번성하기 시작했다.

[정규명(丁奎明, 신길동 778), 1918. 3. 25]

12. 작은뽕골(船谷)

큰뽕골과 원곡역 사이에 자리잡은 마을로, 큰뽕골에 살던 전의이씨 후손들이 분가하면서부터 촌락이 형성되었다. 이곳엔 이경희(李慶禧, 양주목사)·이명희(李明希, 예조참판)·이충가(李忠

可, 근자감부정) · 이언항(李言恒, 부사과) · 이정제(李廷濟, 교위) 등의 묘가 있다.

[이향노(李享魯, 신길동 741), 1930. 7. 25]

13. 장자골(長子谷)

농길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현재 한채가 있다. 예전에 부자가 살았다 하여 장자골(長子谷)이라 칭하고 있으며, 마을 앞에 큰우물은 뱃사람들이 마셨던 우물이라고 한다.

[김수옥(金洙玉, 신길동 450), 1925. 4. 14]

14. 잿마당

농길과 셋빨 사이 고깃마루에 있는 마을로 현재 한집이 있다. 이곳은 예전에 농길·셋빨 주민들이 경원 대보름이면 달맞이를 하던 곳으로, ‘재’(젓)란 고개를 말하며, ‘마당’은 주민들이 달맞이 하던 곳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장명현(姜明賢, 신길동 440), 1915. 2. 8]

15. 큰땡골(船谷)

작은땡골 북쪽에 자리잡은 마을로, 조선시대 바닷물이 이곳에까지 이르러 배가 닿았다 하여 배 ‘선’(船)자를 따서 배골(船谷)이라 칭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부터 ‘땡골’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전의이씨족보》에는 이골(梨谷)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마을은 조선조 명종대(1562) 문과에 급제한 후 양주목사를 역임한 이정희(李慶禧)가 관직에서 물러난 후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으나 손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후 해주최씨와 전주이씨 등이 대대로 살아왔는데, 현재는 전의이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큰땡골은 마을 북쪽지역을 웃땡, 동남쪽지역을 건너땡, 서쪽지역을 아랫땡이라 각각 불리우고 있으며, 마을에서는 큰땡골과 작은땡골 사이에 있는 도당계에서 매년 산신제를 지내오다가, 어느해인가 산신제를 지낸달에 마을에서 소를 잃자 그 다음해부터 산신제를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큰땡골은 작은땡골 북쪽에 있다.

[이해노(李海魯, 신길동 743), 1916. 2. 5]

16. 터진목

일제강점기 때 조근호가 농길과 터진목 사이를 막았는데, 이곳이 사절토여서 큰비가 내리던득이 자주 터지므로 ‘터진목’이라 칭했다 한다. 광복전에는 솟점으로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낚시터에 강태공들이 봄벼 임시 신길간이역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터진목은 농길 서쪽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정규창(丁奎昌, 신길동 582), 1915. 4. 9]

17. 풍 전(豊田)

해주정씨(海州鄭氏)가 배편했던 마을이다. 해주정씨 후손중에 정구(鄭構)란 사람이 용인에서 살다가 종사랑(從仕郎)을 역임하고 이곳에 새거하면서부터 취락이 이루어졌다고 전한다.

본래의 마을이름은 단풍나무가 많아 풍전(楓田)이라 불렀는데, 일제 때 일인들이 풍년 '풍'(豊)자로 잘못 기록하면서부터 '풍전'(豊田)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해주정씨족보》에도 이곳이 풍전(楓田)이라 기록되어 있고, 1955년에 건립된 국민학교의 교명도 풍곡국민학교(원곡국민학교의 전신)라 했으며, 해주정씨 후손중에 학자로 이름이 높았던 정범석(鄭範錫, 현 안산시 평동위원 鄭理燮씨 증조부)의 아호도 풍재(楓齋)였던 것으로 보아 풍전(楓田)이 본래의 지명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 때는 시흥군의 갱생(更生)마을로 지정되기도 했던 이 풍전은 동쪽지역을 건너말, 서쪽지역을 큰밭이라 각각 불리워 오다가 안산신도시건설로 1979년 폐동되어 현재는 안산유봉생태가 자리잡고 있다.

[정명근(鄭命根, 원곡동 758-9), 1932. 5. 10]

18. 한 티

터진목 서남쪽에 있던 마을로, 서울출신 박○○(본관 밀양)가 농길에 살다가 한국전쟁 직후 이곳에 전장(田莊)이 있어 생활의 터전을 위해 집을 짓고 살다가 안산신도시건설 때 폐동된 후 집터는 밭으로 변모되었다.

취락이 형성되기 이전엔 이곳을 한티골짜기라 불렀다.

[강명현(姜明賢, 신길동 440), 1915. 2. 8]

19. 횃밭머리

셋밭과 시흥시 거모동 도일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일제초에 셋밭 등 인근의 주민들(희덕송씨·나주정씨·김해김씨 등)이 분가하면서 살기 시작했다.

이곳은 본래 밭이었는데, 백회(白灰)가 많아 횃밭(灰田)이라 불렀다가 밭 위에 민가가 들어서자 '횃밭머리'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마을에서는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음력 7월에 길일을 택해 셋밭 뒷산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이향노(李享魯, 신길동 741), 1930. 7. 25]

第 11 節 元谷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와리면 원상리(安山郡 瓦里面 元上里)와 모곡리(茅谷里)라 칭했다가, 1914

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군자면 원곡리(始興郡 君子面 元谷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의거 안산시 원곡동(安山市 元谷洞)으로 되었다.

원곡동은 원상리(양지마을)의 '원'(元)자와 모곡리(멧골)의 '곡'(谷)자를 취한 것이며, 신도시 개발 후 취락이 폐종되자 원주민을 위한 이주단지가 조성되어 원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 원곡동 내에 있는 멧골은 예로부터 피난곳이라 하여 전란 때만 되면 화를 면한다는 속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렸다. 양지마을은 분묘가 많았던 곳인데, 현재는 안산시에서 가장 변화한 곳으로 변모되었으며, 백성말은 처음엔 집 한채가 있었으나 장차 백가지 성이 살 곳이라 했는데 이름 그대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개동 전 원곡동에는 ① 멧골(茅谷) ② 동산골(東山谷) ③ 백성말(百姓洞) ④ 신흥동(新興洞) ⑤ 양지마을(陽谷) ⑥ 오지미(奧地山) 등의 취락이 있었다.

1. 멧골(茅谷)

미골(茅草, 우장만드는데 쓰며, 보통 뿔기라고 칭함)이 많이 자생하는 곳이라 하여 '미골'(茅谷)이라 했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멧골'이라 불리우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와리면 모곡리(安山郡 瓦里面 茅谷里)라 불리웠던 멧골은 마을 동북쪽에 있는 털밭을 밭에 일드려 있으면 화(禍)를 면한다는 속설이 있어 한국전쟁 때 서울·인천 등에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 화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며, 주민들 또한 사망·부상·화재 등 일체의 재난이 없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고려말엽에 무신으로, 왜구를 격파하여 큰공을 세운 오연(吳彦)의 묘를 원곡고교 뒤에다 쓴 후 그의 후손인 동복오씨(同福吳氏)가 묘하에 세거하면서부터 취락이 이루어졌다. 그 후 순종안씨 등이 세거해, 마을 북쪽지역은 호수가 제일 많으므로 큰밭, 남쪽지역은 집이 모두 4칸이므로 사칸동, 사칸동 서쪽은 큰밭 앞에 있으므로 압출이라 각각 불렸다. 40여호 남짓했던 이 마을은 1980년에 폐동된 후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이 기숙사가 들어섰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7월1일이면 마을 중앙에 있던 대동우물(식수뿐 아니라 이질·실사 등에 특효)에서 정제(井祭)를 지냈다.

[오문택(吳文鐸, 원곡동 791-8), 1913. 10. 1]

[오형택(吳亨鐸, 원곡동 790-9), 1920. 10. 1]

[오형록(吳亨祿, 원곡동 793-20), 1936. 11. 21]

2. 동산골(東山谷)

조선 숙종 때 우의정을 지낸 동산(東山) 윤지완(尹趾完: 1635~1718)의 사당(祠堂)이 있었으므로 그의 아호를 따서 '동산골'(東山谷)이라 부르고 있다.

윤지완의 묘는 본래 시흥시 산현동 안장바위에 있었는데, 이곳에 묘를 쓴 후 서해안의 조기가

第四篇 地名由來

잡히지 않자 어부들이 상소를 해 개성 천마산으로 천장했다. 그후 그의 후손인 파평윤씨 문중에서 묘소가 원거리에 있으므로 가까운 곳에 사당을 짓고 위패라도 모셔야겠다는 의견에 따라 이곳에 사당을 지었는데, 일제 때에 이르러 노후해 진 것을 1987년에 시흥시 산현동 계골에 있는 윤지원의 조부 윤민헌(尹民獻) 묘 앞에 사당을 신축했다.

안산시 근로청소년회관 동쪽 산아래에 위치해 있는 동산골은, 동산의 사당을 지은 후 사당관리인이 사당 부근에 관리사를 짓고 세거하면서부터 취락이 이루어졌다. 마을에서는 1980년대로까지만 해도 마을 뒷산에서 남양홍씨가 주선해서 산신제를 지냈다.

[윤기열(尹己烈, 시흥시 산현동 369), 1929. 7. 11]

3. 백성말(百姓洞)

이곳은 풍수로 보아 백가지 성(姓)이 살 곳이라 하여 '백성말'(百姓洞)이라 칭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일제 때 군자동 사무소 초입에 태양호(太陽曠)씨가 살았으며, 그후 그의 아들 태응균(太應均, 현 반월조정대표)씨가 살다가 1979년에 폐동된 후 현재는 주택지로 변모되었다.

[박종업(朴鍾燁, 원곡동 761), 1931. 3. 2]

4. 신흥동(新興洞)

1937년 수인선 개통 후 원시동 범적이 출신 강모가 안산전철역과 수인선 원곡역 사이에 초가를 짓고 산 후 인근의 주민들이 세거하면서 취락이 이루어졌다. 1986년 안산전철역 건설 때 폐동되었다.

[박종업(朴鍾燁, 원곡동 761), 1931. 3. 2]

5. 양지마을(陽谷·陽地)

안산시에서 가장 변화한 곳으로 백성말 동쪽에 있던 마을이다.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와리면 원상리(安山郡 瓦里面 元上里)라 칭했던 마을로, 본래의 양지마을은 동쪽은 중소기업연수원 앞 사거리에서 서쪽은 원곡1동 사무소, 남쪽은 기간산업도로, 북쪽은 라성호텔에 이르는 제 지역으로 남향밭이 양지 바른곳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양지마을'(陽谷·陽地)이라 불렀다.

양지마을은 한양조씨가 배관한 이래 밀양박씨·파평윤씨·밀양손씨·금녕김씨·순흥안씨 등이 세거해 모두 48집이 있었는데 그중 밀양박씨가 전 호수의 3분의 1인 16호나 되었다. 동·서로 늘어져 있던 이곳은 동쪽지역인 연수원 입구 지역을 이렛말, 원곡1동 사무소가 있는 서쪽지역을 웃말 이라고 각각 불렀다.

양지마을은 명당지라 하여 분묘가 많았는데, 이를테면 원곡고교와 현충탑 남쪽에 이르는 지역은 시흥군 당시 원곡리 공동묘지였으며, 라성호텔과 남쪽도로 사이에는 파평윤씨 선대의 묘가, 연수원입구 서쪽 산 능선에는 한양조씨 선대의 묘가, 반월회관 주변에는 밀양박씨 선대의 묘가

각각 있었다가 신도시개발에 따라 모두 이장 또는 화장되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8월 15일을 전후 길일을 택해 웃말과 아랫말 사이에 있는 대동우물에서 정제(井祭)를 지냈다.

[박종업(朴鍾燁, 원곡동 761), 1931. 3. 2]

6. 오지미(奧地山)

양지마을 동북쪽으로 현 안산시 종합운동장 예정지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본래 두 집이 살아 두집매라 불렀고, 원곡동에서는 가장 오지에 위치한 취락이라 하여 '오지미'〔奧地山〕라 칭한다고 한다.

이곳은 일제 때 일인들이 염밭(鹽田)을 만들려다가 광복으로 중단되자 한국전쟁 직후 부평 화랑농장에 살던 용사(勇士)들을 집단 이주시키면서 취락이 이루어졌다. 이들 용사들은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주했고, 현재는 빈집만 있을 뿐이다. 일명 '화랑농장'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일부는 초지동에 속한다.

[박종업(朴鍾燁, 원곡동 761), 1931. 3. 2]

第 12 節 元時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와리면 원하리(安山郡 瓦里面 元下里)와 시우동(時雨洞)이,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시흥군 군자면 원시리(始興郡 君子面 元時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따라 안산시 원시동(安山市 元時洞)으로 되었다.

원시동은 원하리(元下里, 범직이)의 '원'(元)자와 시우동(時雨洞, 시골)의 '시'(時)자를 취한 것으로, 예전 군자면 관내에서는 부촌(富村)이었을 뿐 아니라 기독교가 첫 전래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근의 목내동·성곡동과 함께 옛 집 한채 없이 모두 헐리어 현재는 반월공업공단의 중심지로 변모되었다.

폐동전 원시동의 자연취락은 ① 범직이〔凡直〕 ② 시골〔時雨〕 ③ 울나무골〔漆谷·楓谷〕 ④ 은행나무뿌리 ⑤ 진밭 등이 있었다.

1. 범직이(凡直)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와리면 원하리(安山郡 瓦里面 元下里)라 칭했으며, 초지동 하나골 서쪽에 위치해 있던 마을이다. 풍수로 보아 마을 뒤에 있는 안산(安山)이 범(虎)이 동쪽을 골개 내려다 보는 형상이라 하여 '범직'〔凡直〕이라 불렀는데, 범(凡)자를 쓰는 것은 소리나는 데로 발이

第四編 地名由來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해김씨 참판공과 가전(家傳)에 따르면 조선 현종 때 김해김씨 금녕군의 12세손인 김무승(金武承: 1608~1673)이 훈린원 도정(都正)을 역임하고 이곳에 낙향한 후 생전에 후손에게 이르기를 “거짓없이 바르게 살라”고 하여 ‘법직’(凡直)이라 했다는 것이다.

법직이는 김해김씨 이래 하동정씨·언양김씨·진주강씨 등이 세거해 폐동(1978)전에는 78호가 있었는데 ‘김씨촌’이라 부를 만큼 김해김씨가 대성을 이루었다. 현재는 반월공업단지로 조성되어 보성물산·대양금속·(份)동선·극동제련·대한약품 등이 들어섰다.

광복 이전까지 만해도 마을에서는 해마다 봄에 길일을 택해서 마을 어귀에 있던 향나무 앞에서 나무제를 지냈다.

[김영서(金榮瑞, 시흥시 거모동 1159-8), 1931. 7. 25]

2. 시골(時雨洞)

이곳은 예로부터 모낼 때만 되면 비가와 언년세세 풍년이 든다고 하여 ‘시골’(時雨洞)이라 부른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와리면 시우리(安山郡 瓦里面 時雨里)이라 칭했던 이 마을은 남양홍씨·밀양박씨·청주한씨·진주하씨 등이 세거해 왔고, 폐동(1978)전에는 65호의 큰마을로, 서북쪽지역은 옷밭, 동북쪽지역은 서민밭, 동쪽지역은 우덕골, 동남쪽지역은 사땃밭, 서남쪽지역은 논밭, 북쪽지역은 양지촌이라 각각 칭했다.

시골은 신도시개발 전 군자면 관내에서는 기독교가 최초로 전래된 곳으로 광무 10년(1906) 하진태·홍창익씨 등 주민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융희 3년(1909) 4월 15일에 예배당 6칸을 지었고, 1968년 마을의 중앙지인 원시리 407번지에 예배당 33평을 신축했다가 1978년 9월 신도시개발에따라 원곡동에 60평의 예배당을 기공한데 이어 이듬해 원시리교회에서 성광교회로 개칭하였다.

법직이 동쪽에 위치해 있던 시골은 1978년 반월공업공단으로 조성되어 현재는 서울정공·화일볼트·우창공업·태광제약·동원금속·한일철강·신신제약 등의 공장과 안산상공회의소·반월공업공단 등이 들어섰다.

[박배근(朴培根, 원곡동 760-14), 1934. 7. 22]

3. 옷나무골(漆谷·楓谷)

시골 북쪽에 있었던 마을로, 옷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으므로 ‘옷나무골’(漆谷)이라 불렀다가 조선말엽부터 ‘풍곡’(楓谷)으로 개칭되었다.

이곳은 용인이씨 참의공파 30세인 이승호(李崇祐: 1723~1789 형조판서)와 그 아들 이제학(李在學: 1745~1806 형조판서)의 묘가 있었다가 갑신정변(1884) 후 그의 후손(용인이씨)들이

묘하에 살면서부터 호수가 늘어 폐동(1978) 전에는 20여 호가 되어 마을 동쪽지역은 웃말, 서쪽 지역은 아랫말이라 각각 칭했다.

신도시개발로 현재는 반월공업단지로 조성되어 광신단지·한국푸로그·경인가스·경인도금·제일도금·원평산업 등이 들어섰다.

[이진업(李鎭鄴, 원곡동 777-2), 1936. 12. 6]

4. 은행나무뿌리

범직이와 시골사이 산 모퉁이에 은행나무가 있었으므로 '은행나무뿌리'라 불렸다. 이곳에는 하상필(河相必)이 살다가 1963년에 집이 헐리자 폐동되었고, 그후 신도시개발로 반월공업단지로 변모되어 현재 삼천리기공·동아공업·중원전기공업 등이 들어섰다.

[박배근(朴培根, 원곡동 760-14), 1934. 7. 22]

5. 진 말

마을의 지세가 동·서로 길게 생긴 마을이라 하여 긴말이라 칭했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진말'로 불리웠다고 한다. 이 마을은 범직이에 살던 김무승(金武承)의 후손인 김해김씨가 분가를 하면서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 취락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구전에 따르면 마을 동쪽에 있는 산 부리가 진말을 향해 있어 남자가 난봉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라 마을의 호수가 늘지를 않는다고 한다. 폐동 때(1978)에는 모두 4집이 있었다.

범직이 남쪽에 있던 진말은 동쪽지역을 아랫말, 서북쪽지역을 웃말, 중앙을 가운데말이라 각각 불렀으며, 마을에서는 해마다 봄이면 길일을 택해서 마을출입 장승박이에 있던 향나무 앞에서 나무제를 지냈으며, 현재는 반월공업단지로 조성되어 선진산업·국제섬유·동남팔프공업·협진산업·동양직물·조선인터내셔널 등이 들어섰다.

[김영문(金榮文, 원곡동 754-13), 1929. 1. 2]

第 13 節 草芝洞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와리면 초지리(安山郡 瓦里面 草芝里)였다가, 1914년 3월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군자면 초지리(始興郡 君子面 草芝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따라 안산시 초지동(安山市 草芝洞)으로 되었다.

초지동은 삼국시대 이후부터 조선왕조에 걸쳐 남양만을 제압하는 서해안의 요충지로 초지양영(草芝梁營)이 있었다가 효종 7년(1656)에 강화도로 옮겨 이곳을 1초지, 강화도의 것을 2초지

第四篇 地名由來

라 하였다. 이곳은 일찍이 어업이 번성했던 곳으로 신촌·옛집터·작은백중·큰백중, 작은주정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마을이 폐동되어 공장이 들어섰다.

폐동 전 초지등의 자연취락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가나골 ② 갯머리 ③ 더덕구지 ④ 둔배미 ⑤ 신촌(新村) ⑥ 옛집터 ⑦ 원초지(元草芝) ⑧ 작은백중 ⑨ 작은별망(別望) ⑩ 작은주정(舟井) ⑪ 큰별망(別望) ⑫ 큰백중 ⑬ 큰주정(舟井) ⑭ 한학골(閑鶴谷) ⑮ 화랑농장(花郎農場)

1. 가나골

갯머리 위(동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일명 옷말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작은 골짜기 안에 자리잡은 이곳은 신도시개발 이전 초지동 주민들이 군사면 사무소, 도일시장 등을 가지면 반드시 거쳐야할 만큼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한다. 가나골은 우계이씨·여흥민씨 등이 세거해 20여호 있었다가 1979년에 폐동된후 반월공업단지로 조성되었다.

[심종환(沈鍾煥, 선부동 981-3), 1929. 12. 30]

2. 갯머리

큰별망 북쪽에 있었던 취락으로, 조선시대에는 이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하여 '갯머리'(또는 개머리)라 부르고 있다. 어촌(魚村)이었던 이곳은 탄전을 기원하는 장승놀이가 행해질 만큼 어업이 번성했었다.

갯머리는 우계이씨·여흥민씨·청송심씨·강릉김씨 등이 세거했으며, 폐동 때(1979)에는 12호가 있었으며, 신도시 개발에 따라 반월공업단지로 조성되어 현재 광일염직·우성염직 등이 들어섰다.

[민풍식(閔豐植, 원곡동 759-16), 1916. 7. 19]

3. 더덕구지

옛 이름은 더덕고지라고 한다. 더덕은 초롱꽃과의 다년생 만초로, 뿌리는 식용하며 한방에서 거담이나 건위 등에 약재로 쓰이는 식물이며, 고지(串)는 바닷가에 뾰족하게 내민 땅이니 즉 고지에 더덕이 많이 자생하는 곳이므로 더덕고지라 했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더덕구지'로 되었다는 것이다.

갯머리 동쪽에 위치해 있던 더덕구지는 홍해희씨를 비롯해 우계이씨·남양홍씨·여흥민씨 등이 세거해 모두 4집이 있었다가 1979년에 폐동된 후 반월공업단지로 조성되어 현재 오일섬유·세화섬유·(筭)대농 등이 들어섰다.

[민풍식(閔豐植, 원곡동 759-16), 1916. 7. 19]

4. 둔배미(元堂·元浦·元堂浦)

큰백중 동북쪽에 위치해 있던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와리면 원당리(安山郡 瓦里面 元堂里)라 칭했다. 이곳은 군사요새지여서 고려 때부터 둔전(屯田, 군량 또는 관아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국가가 저급한 토지)과 둔전병(屯田兵, 군사상 중요지이거나 또는 군대들이 오래 머무는 곳에서 농사짓는 병졸)이 있었으므로 '둔배미'라 불렀다고 하며, 또 초지동에서 취락이 제일먼저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원당'(元堂)이라 부르기도 하고, 포구 또한 제일 먼저 생긴 곳이라 하여 '원포'(元浦) 또는 '원당포'(元堂浦)라 칭하기도 하였다.

둔배미는 밀양박씨·연일정씨·천안전씨 등이 대대로 살아 온 마을로, 서쪽지역을 양지쪽, 동쪽지역을 음달쪽이라 각각 불렀다. 폐동 때(1977)에는 80여호의 대촌(大村)으로 신도시개발로 반월공업단지로 조성되어 현재는 고려개밭이 들어섰다.

어촌(漁村)이었던 이곳은 1989년 9월 9일 제6회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주민들(주로 어민)이 만산취향을 기원하며 놀던 '안산 둔배미 놀이'가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천용안(田龍安, 원곡동 777-1), 1904. 8. 15]

5. 신 촌(新村)

둔배미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본래 둔배미에 속한 지역이었다가 한국전쟁 직후 황해도 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새로 취락을 형성해 현재 4집이 있다.

[민찬기(閔讚基, 고잔2동 532), 1921. 9. 17]

6. 옛 집터

큰백중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조선말엽에 폐동되었다가 1950년에 이르러 옛 집터 자리에 민가 2집이 신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관선(吳寬善, 초지동 305), 1931. 4. 24]

7. 원초지(元草芝)

작은밀방 북쪽에 위치한 마닷가로, 조선시대에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진(鎭)을 설치했는데, 이를 사곡영(沙草營) 또는 초지양영(草芝梁營)이라 불렀으며, 이곳 초지진은 효종 7년(1656)에 강화도에 이속되었다.

원초지는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마을로, 남쪽지역은 아랫밭, 북쪽지역은 웃밭이라 각각 불렀으며, 여흥민씨가 배관한 이래 유계이씨 등 23호가 있었다가 1979년 폐동되어 반월공업단지로 조성된 후 현재 동일제봉·유신염직·신진나염 등이 들어섰다.

[이명근(李命根, 원곡동 772-6), 1912. 12. 17]

第四篇 地名由來

8. 작은백중

가나골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큰백중에 살던 주민들이 분가하면서 새로 건설한 마을이라고 한다.

[민풍식(閔豊植, 원곡동 759-16), 1916. 7. 19]

9. 작은별망(別望)

큰별망 아래(동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므로 '작은별망'이라 불렀다. 이곳은 1950년대에 이르러 둔배미에 둑(堤防)을 막으면서 염밭(鹽田)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자 둔배미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어민들이 정착하면서 점차 번성하기 시작했다.

폐동 때(1979)에는 15호 남짓 있었다가 신도시개발에 따라 만월공단단지조 조성되어 현재 신성섬유·임영모방 등이 들어섰다.

[민찬기(閔讚基, 고잔2동 532), 1921. 9. 17]

10. 작은주정(舟井)

큰주정이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한국전쟁 직후 황해도 동지의 난민들이 정착하면서부터 위락이 이루어졌다. 5호 남짓한 작은마을이다.

[오관선(吳寬善, 초지동 305), 1931. 4. 24]

11. 큰별망(別望)

경기도 지정기념물 제73호인 '별망성'(別望城) 주변에 있던 마을로 이곳에 김씨란 어부가 살다가 1970년대초에 내무부의 집단 마을화 시책에 따라 김씨가 작은 별망으로 이주할 때 폐동되었고 김씨가 살던 집터는 신도시개발 때 해안 순환도로에 편입되었다.

별망성은 남양만에 걸쳐 해안으로 침입하는 외적을 막기 위해 해안을 따라 두 작은 구릉사이에 둘로 쌓은 해안산성을 말한다. 이곳 별망산(別望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구전되고 있다.

삼국시대 때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 이곳 산봉우리에 올라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풍랑을 만나 남편이 불귀의 객이 되자 여인 또한 이곳에서 먼 바다를 보며 일생을 바쳤다고 한다. 그후부터 이 산을 별망산(別望山)이라 불렀고 마을 이름 또한 산명을 따서 '별망' 또는 '별망꾸리'라 불렀다고 한다.

신도시개발에 따라 현재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섰다.

[심중환(沈鍾煥, 선부동 981-3), 1929. 12. 30]

12. 큰백중

구전에 따르면 작은백중 소재 방농장(사슴목장) 뒤에 절이 있었는데 백명의 중이 있었을 만큼 큰 절이었다고 한다. 또 처음 마을이 이루어졌을 때 마을의 인구가 백명(百衆)이므로 '백중'이라 불렀다고 한다.

작은백중 동쪽에 있는 5호 남짓한 작은 취락인데 안산신도시계획에 따라 장차 폐동될 것으로 알려진다.

(민풍식(閔豐植, 원곡동 795-16), 1916. 7. 19)

13. 큰주정(舟井)

이곳은 한국전쟁 후 대립산업에 의해 약 50정보의 임전을 설치해 1년 남짓 소금을 생산했다가 농림부에 의해 농지로 개간되자 1954년에 황해도·평안도 등지의 난민 20여호가 들어서면서부터 취락이 형성되었다. 그후 작은주정 등지로 주민들이 이주하자 호수가 차차 줄어들어 폐동 때(1977)에는 7호에 불과했다.

주정(舟井)이란 마을 명칭은 마을 초입에 샘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민가가 있기전 몇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했다 하여 '주정'(舟井)이라 불렀다고 한다. 신도시개발로 현재는 경보주식회사·경성방직 등이 들어섰다.

(오관선(吳寬善, 초지동 305), 1931. 4. 24)

14. 한학골(閑鶴谷)

삼태기처럼 오목한 곳에 자리잡은 마을로 흡사 학이 한가하게 놀고 있는 형국이라고 한다. 깃머리 서쪽에 위치해 있던 이 마을은 여(呂)씨가 배판한 이래 여흥민씨·강릉김씨 등이 세거해 8호 남짓한 작은마을이었다. 신도시개발에 따라 1979년에 폐동된 후 반원공업단지조성되어 현재 한국지퍼·한독섬유·일신방직 등이 들어섰다.

(민병수(閔丙壽, 와동 121-12), 1913. 12. 20)

15. 화랑농장(花郎農場)

본래는 둔베미에 속한 마을로 화랑저수지 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한국전쟁 직후 부평 화랑농장에 살던 용사(勇士)들을 이주시키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다. 현재 집은 있으나 사람은 살지 않으며, 일부는 원곡동에 속한다. 이 마을 북쪽은 안산시 쓰레기 매립장이다.

(오관선(吳寬善, 초지동 305), 1931. 4. 24)

第 14 節 一 洞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성곶면 일리(廣州郡 聲串面 一里)라 했다가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에 따라 안산군 성곶면 일리(安山郡 聲串面 一里)로 되었으며,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수원군 반월면 일리(水原郡 半月面 一里)로 개칭되었고, 그후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1호에 따라 화성군 반월면 일리(華城郡 半月面 一里)로 불리웠다.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의거 안산시 일동(安山市 一洞)으로 되었다.

일동은 옷말·웅단말·기와집말 등을 통칭해 '구렁골'(九龍谷)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는 이곳이 명당지(明堂之地)로 좌청룡(左靑龍)이 완전한 곳이기 때문이다. 구렁골은 본래 단성이씨의 세거지이나 조선말엽에 김수근(金洙根: 1798~1854, 이조판서), 김병학(金炳學: 1821~1879, 영의정), 김병국(金炳國: 1825~1904, 영의정), 김정규(金貞圭: 1866~1895, 이조참판), 김용진(金容鎭: 1878~1968, 화가) 등 안동김씨 세대에 밀려 안동김씨의 세장지로 되었다가 신도시개발 때(1979) 이들의 묘는 화장되었고, 신도비와 묘역에서 출토된 18명의 남·여 복식은 온양민속박물관에 의해 수습되었으며. 이들 유물을 가지고 동 박물관에서는 개관 11주년 기념으로 1989년 10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안동김씨분묘출토복식전'을 열었다.

특히 근세 한국화 화가로 유명했던 김용진(金容鎭)의 구룡산인(九龍山人)이란 아호는 이곳 지명에서 취한 것이라고 한다. 일동은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성곶면으로 안산군 군내면과 경계를 이루었던 곳이며, 신도시 개발로 모든 마을이 폐동되어 일동의 옛 정취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변모되었다.

폐동 전 일동의 자연위락은 ① 기와집말(瓦村) ② 석삼말(石三村) ③ 아랫말(船村) ④ 안골(內谷) ⑤ 웅단말 ⑥ 주막거리(酒幕巨里) 등이다.

1. 기와집말(瓦村)

이 마을은 조선초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김병국(金炳國: 1825~1905)의 재실이 있었다는 연유로 '기와집말'(瓦村)이라 불렀으며, 구렁골에서는 제일 위에 위치해 있다 하여 '옷말'이라 칭하기도 했다.

재실은 이곳 뒷산 기슭 평지에 있던 안동김씨 가묘(家廟)를 배경으로 '입구(口)'자 모양으로 정남향을 하고 있었으나, 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1979년 김병국·김수근 등 안동김씨의 분묘는 화장되었고 묘비와 재실에 사용된 건축물 등은 현재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전택(李鎭澤, 일동 272의 5-1), 1926. 6. 17)

2. 석삼말(石三村)

호동국민학교와 수인산업도로 사이에 있던 마을로, 이곳에 큰 돌이 하나 있었는데, 멀리서 보

면 흡사 3개의 바위가 나란히 있는 형상이었다고 한다. 폐동 때(1977)는 모두 7집이 있었는데 4집은 일동에 3집은 이동에 각각 속했다. 현재는 도로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진택(李鎭澤, 일동 272의 5-1), 1926. 6. 17)

(엄희섭(嚴喜燮, 일동 112-6), 1935. 3. 20)

3. 아랫말(船村)

일동(구령골)에서 가장 아래에 있던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배가 이 마을에까지 들어왔다 하여 '선촌'(船村)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일제강점기인 1937년 수인선 부설 때 이곳에 역사(驛舍, 일리역)를 지었다가 안산~금정 전철공사 때 폐사(廢舍)되었다.

아랫말은 어촌(漁村)이라 대성은 없었으며, 호수는 40여호로 1979년에 개동된 후 택지로 조성되어 1986년부터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는 이곳을 '매화동'이라 칭한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7월에 길일을 택하여 성태산 당집에서 당제(堂祭)를 지냈다.

(나호석(羅浩錫, 일동 88-11), 1931. 8. 14)

4. 안 골(內谷)

웃말 동쪽 삼태기처럼 오목한 곳에 자리잡았던 마을이다. 단성이씨 누대의 세거지였던 이곳은 조선말엽 안동김씨 세도에 밀려 김수근(金洙根: 1798~1854 이조판서), 김병국(金炳國: 1825~1905, 영의정) 등의 묘를 이 마을과 웃말 사이에 썼다가 신도시개발 때 이들의 묘는 화장되었고, 묘비 등은 현재 은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0여호 남짓하던 안골은 1989년에 폐동된 후 현재는 간호전문대학 예정지로 되었으며, 마을에서는 마을 뒷산(성태산) 절터에서 해마다 음력 7월에 길일을 택해서 산신제를 지냈다.

(이창문(李昌汶, 일동 87-7), 1915. 12. 1)

5. 응단말

웃말과 아랫말 사이에 산(안산)이 있어 해가 늦게 뜨는 마을이라 하여 '응단말'이라 칭했다.

함안이씨 누대의 세거지였던 응단말은 15집이 있었다가 1978년에 폐동된 후 주택지로 조성되어 1986년부터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폐동 전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7월 1일에 응단말 뒤에 있는 안산 기슭에서 서낭제를 지냈다.

(이창문(李昌汶, 일동 87-7), 1915. 12. 1)

6. 주막거리

이덕선생 묘역 남쪽에 있었던 마을로, 이곳은 조선시대 때 인천↔수원을 왕래하는 행려자가 많아 주막(酒幕)이 번성했다고 한다. 주막거리에는 경주씨씨를 비롯해 어주이씨·경주김씨 등 16

第四篇 地名由來

호가 있었다가 1981년에 폐동되어 주민들은 대부분 일동으로 이주했고, 현재는 택지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성호 이익(李穰: 1681~1763, 실학자)선생 묘(道 기념물 제40호)가 있고, 그의 8대조 인 이계손(李繼孫: 1423~1484, 병조판서)의 묘는 폐동 후 양평으로 이장되었다.

[김영현(金榮賢, 일동 108-1), 1931. 12. 25]

第 15 節 二 洞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성곶면 이리(廣州郡 聲串面 二里)라 했다가,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에 따라 안산군 성곶면 이리(安山郡 聲串面 二里)로 되었으며,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수원군 반월면 이리(水原郡 半月面 二里)로 개칭되었고, 그후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1호에 따라 화성군 반월면 이리(華城郡 半月面 二里)로 불리웠으며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의거 안산시 이동(安山市 二洞)으로 되었다.

이동은 일동과 삼리(현 사동에 속한 마을이나 조선시대에는 범정리였음) 사이에 위치해 있어 '이동'(二洞)이라 칭했으며, 이곳은 성포동·일동·사동 등 주변지역을 신도시 개발에 옛 자연취락이 폐동되었으나 이동은 대부분의 취락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붉은섬 등의 낚시터에는 낚시꾼들이 끊이질 않는다. 신도시 개발 전의 자연취락은, ① 고잔(古棧) ② 독안 ③ 바라지 ④ 붉은섬 ⑤ 양지편(陽地便) ⑥ 역전(驛前) ⑦ 음택이(陰澤) ⑧ 조구나리 ⑨ 조미(造梅)

1. 고 잔(古棧)

청주한씨·진주이씨 등이 대대로 살아 온 마을로, 음택이와 조구나리 사이에 위치해 있다. 바닷가 언안으로 고지(串)안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고잔'(古棧)이라 칭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구라(사동)에 포구가 생기면서 바닷물이 끊겼으며, 농경지로 변모되었다.

[이승목(李承穆, 이동 500), 1932. 10. 11]

2. 독 안

고잔 서북쪽으로, 독처럼 오목하게 생긴곳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이곳은 풍수로 보아 좌청룡(左靑龍)에 속하며, 예전에는 마을 서남쪽에 있는 산 능선을 따라 소나무가 울창해 마을의 풍취가 아름다웠다고 한다.

[한강(이동 424), 1935. 8. 19]

3. 바라지

본래는 붉은섬에 속했던 마을로, 붉은섬 동쪽에 있다. 이곳은 바닷물이 들어오면 수문이 닫히고, 바닷물이 나가면 바라지므로 '바라지'라 칭하고 있는데, 한국전쟁 직후 구라(사동)에 표구가 생기자 바닷물이 안들어 오고 있다.

[한강(이동 424), 1935. 8. 19]

4. 붉은섬

조구나리 서남쪽에 있으며, 취락이 형성되기는 1962년 이온구(김포출신), 최구완(황해도출신), 원충희(당진출신) 등이 입주하면서 부터이다.

이곳은 마을 전체가 안산시 이동 505번지 일대로, 토질은 풀이 자생할 수 없을 만큼 붉을 뿐만 아니라, 허허벌판 가운데에 있는 마을뿔산이 흡사 섬같으므로 '붉은섬'이라 부르고 있다. 마을 앞에는 유명한 붉은섬 낚시터가 있다.

[공영배(孔英培, 이동 505), 1937. 11. 6]

[이온구(李殷求, 이동 505), 1922. 1. 21]

5. 양지편(陽地便)

읍택이 동북쪽으로, 본래는 고잔에 속했던 마을이라고 한다. 남향반이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양지편'(陽地便)이라 부르고 있다.

[이승준(李承俊, 일동 123-5), 1929. 11. 26]

6. 역 전(驛前)

1937년 수인철도 부설과 함께 일리역사(一里驛舍)가 건립되자 역사 앞에 민가가 생기면서 취락이 이루어졌다. 신도시개발 전에는 방앗간·대장간 등 3집이 있었다가 1980년 폐동으로 인해 원주민들은 일동으로 이주했고, 민가가 있었던 지역은 현재 도로로 편입되었다. 조미 동남쪽에 있던 마을이다.

[한강(이동 424), 1935. 8. 19]

7. 음택이(陰澤)

삼태기처럼 깊숙한 곳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청주한씨·전주이씨 등의 세거지로 고잔 동남쪽에 있다.

[이민선(李民善, 이동 472), 1919. 6. 2]

8. 조구나리

성포동 성머리나루와 함께 어업의 전진기지였으나 한국전쟁 직후 구라(사동)에 포구가 생기면서 농촌으로 변모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광주유수가 이 지역의 조세(租稅)를 싣고 인천~한강을 경유하여 관가에 바쳤다하여 조공(租貢)나루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조구나리'라 불리우고 있다.

조구나리는 청주한씨·진주이씨 등이 세거해 온 마을로, 1980년 취락구조로 개선된 취락이라 하여 일명 '취락마을'이라 부르기도 하며, 안산시 가족계획 시범마을이기도 하다. 고잔과 안산**급정 전철선 사이에 있다.

[한강(이동 424), 1935. 8. 19]

9. 조미(造梅)

양지편 동남쪽에 있던 마을이나 신도시개발에 따라 1985년 폐동된 후 한대역(漢大驛)이 생겼다. 이곳은 성포동의 성머리, 독주골과 이동의 조구나리, 양지편 주민들이 수인선 일리역을 가자면 반드시 거치는 교동의 요충지여서 주막이 번성했다.

[한강(이동 424), 1935. 8. 19]

第 16 節 四 洞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성곶면 삼리(廣州郡 聲串面 三里)와 사리(四里)였다가,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98호에 따라 안산군 성곶면 삼리(安山郡 聲串面 三里)와 사리(四里)로 되었으며,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수원군 반월면 사리(水原郡 半月面 四里)로 개칭되었고, 그후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1호에 따라 화성군 반월면 사리(華城郡 半月面 四里)로 불리웠으며,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의거 안산시 사동(安山市 四洞)으로 되었다.

사동은 신도시 개발전에는 화성군 양감면장보다 사리(현 사동)이장을 한다고 할 만큼 화성군 관내에서는 리(里)면적이 제일 컸다고 한다. 또 조선시대에는 남양과 안산지방에서는 '주다리'(珠橋里)라 칭했고, 사동의 집성 성씨인 양주최씨를 일컫어 '주다리 최씨'라 불렀다.

사동은 구라와 송지골(承旨谷)외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백단지·야파트단지·학교(대학교)부지로 조성되었고, 특히 샘골은 옛 반월면의 기독교 전래지이자 최용신이 농촌계몽을 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폐동전 사동의 자연취락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가래재 ② 감자골(柿谷) ③ 구라 ④ 긴꽃(長華) ⑤ 느진구지(晚花串) ⑥ 뒷골(後谷) ⑦ 막고지(莫串) ⑧ 분대(粉堡) ⑨ 산우물(山井) ⑩ 삼리(三里) ⑪ 삼밭(麻田) ⑫ 샘골(泉谷) ⑬

석호(石湖) ⑭ 승저골(承旨谷) ⑮ 초당(草堂) ⑯ 항가울(杭湖)

1. 가래재

감자골 서남쪽에 있던 마을로 가래나무가 많았던 곳인데 본오동 출신 양주영(엄전업)이 일제강점기 말엽에 처음 세거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폐동 때(1979)에는 3집이 있었는데, 신도시 개발로 현재는 주택지로 변모되었다.

[최용식(崔用植, 사동 1167-17), 1924. 9. 15]

2. 감자골(柿谷)

집집마다 감나무가 있으므로 '감자골'(柿谷)이란 지명이 붙여졌다고 한다. 분대의 처음 세거한 최훈의 후손(양주외씨)이 이룩한 마을로 그후 원주변씨 등이 세거했다. 폐동 때(1979)에는 22호가 있었고,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다.

장화 동북쪽에 위치해 있던 감자골은 폐동전만 해도 삼밭 뒷산(고리봉)에서 해마다 음력 10월 16일에 산신제를 지냈다.

[최만규(崔晩圭, 사동 1154-6), 1919. 10. 29]

[최동규(崔東圭, 사동 1151-5), 1916. 12. 6]

3. 구라(救羅)

사리(현 사동) 횃집으로 유명한 마을이다. 광복 이전만 해도 쉼달굴과 잭목 등이 우거진 곳이었으나 방조제 축조 후 인부들의 사택을 위한 민가가 신축되면서 취락이 이루어졌다. 그후 사회부(현 보건사회부)에 의해 난민 정착을 위해 50세대의 민가를 지으면서 호수가 늘기 시작하였고, 신도시개발로 횃집이 들어서자 더욱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이곳의 포구는 9·28 수복 후 방조제 축조로 인해 성포동 성머리 포구가 이곳으로 옮겨지고 성머리 어민 일부가 이곳에서 어업 활동을 계속하자 점차 어업의 전진지대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구라는 수문(水門)을 경계로 동쪽지역은 사동 234번지이고, 서쪽지역은 사동 242번지이다. 이곳은 예로부터 구리가 많이 매장되어 '구라'라 했다는 설과 이곳 바위에 굴이 많이 나므로 '남양원님 굴 마시듯한다'는 속담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신라말 풍수지리학자인 '도선'이 이곳을 지나다가 지금의 성포동 예술인 아파트 부근 산에서 사리쪽을 보고 '천명의 거지가 모여살 자리'라 하여 '구라(救羅)'라 했다는 설 등이 전해지고 있다.

[이찬(李濼, 사동 704-105), 1921. 9. 12]

4. 긴 곳(長葦)

항가울과 감자골 사이 고지(바다로 뾰죽하게 내린 땅을 말함)가 길게 생긴 곳에 자리잡은 마

第四節 地名由來

을이므로 ‘긴곳’〔長華〕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곳은 조선조 연산군 때 분대에 낙향한 최훈의 후손(양주최씨)들이 분가를 하면서 처음으로 자리를 잡아 취락이 이루어진 마을로 폐동 때(1988)에는 27호가 있었다. 신도시계획에 따라 현재는 주택지로 변모되었으며, 폐동 전만 해도 마을에서는 삼밭 뒷산(고리봉)에서 해마다 음력 10월 16일에 산신제를 지냈다.

〔최용권(崔用權, 본오동 336브럭 6-5), 1926. 9. 10〕

5. 느진구지(晚花串)

생골 서쪽으로, 현 영신장 남쪽에 위치해 있던 마을이다. 이곳은 바다가 뾰족나온 곳(串)으로, 지대가 높을 뿐 아니라 골(谷)이 좁아 배가 늦게 들어오므로 ‘느진구지’〔晚花串〕라 불렸으며, 일제때는 양주최씨의 묘막이 있었고, 폐동 때(1979)에는 모두 13호가 있었다가 신도시개발로 현재는 택지로 조성되어 있다.

〔최종관(崔鍾寬, 사동 1151-5), 1939. 3. 25〕

6. 뒷골(後谷)

조선중엽 연산군 때 분대에 낙향한 최훈(崔暉) 셋째 아들의 후손(양주최씨)들이 분가하면서 새겨한 마을이다. 그 후 임(任)씨·수성최씨·김해김씨·안동김씨·밀양박씨·수원백씨·평산신씨·신안주씨 등 12성씨가 살았다. 사동에서 제일 높은 지대에 속했던 이 마을은 삼리 뒤에 위치해 있는 취락이라 하여 ‘뒷골’〔後谷〕이라 불렀다고 한다. 폐동 때(1979)에는 20여호 남짓한 마을이었는데 신도시개발로 현재는 택지로 조성되어 있다.

폐동전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16일에 삼밭 뒷산 고리봉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최남규(崔南圭, 교란2동 주공APT 7-201), 1915. 11. 5〕

7. 막고지(莫串)

본오동 경계에 자리잡았던 마을로, 북쪽으로는 산우물, 남쪽으로는 생골이 있었다. 이곳은 바다에 돌출된 땅 끝에 있는 마을이므로 ‘막고지’〔莫串〕라 불렀다. 진주이씨와 중앙조씨 등의 오랜 세거지였던 막고지는 마을 남쪽에 포구가 있었다가 광복 직후 서해안 방조제 설치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자 선박의 출입이 끊겼다.

폐동 때(1987)에는 22호가 있었으며, 신도시 개발에 따라 택지로 조성된 후 1989년부터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영우(李榮雨, 어동 280브럭 3-5), 1931. 3. 1〕

8. 분 대(粉袋)

조선초 연산군 때 최혼(崔渾)이 통덕랑에 재임중 사화(士禍)로 이곳에 낙향해 초가를 짓고 살아 취락이 이루어졌다. 그후 그의 후손(양주최씨)이 긴곳·삼밭·초당·감자골 등지로 분가하면서 일가를 이루었다.

삼밭과 항가를 사이에 있던 분대는 폐동 때(1979)에는 19길에 있었다가 신도시개발에 따라 주택지로 변모되었다. 마을에서는 삼밭 뒤에 있는 고리봉에서 해마다 음력 10월 16일에 산신제를 지냈다.

[최만규(崔晩圭, 사동 1154-6), 1919. 10. 29]

[최동규(崔東圭, 사동 1151-5), 1916. 12. 6]

9. 산우물(山井)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로 흡사 우물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산우물’(山井)이라 불렀다. 딱고지 북쪽에 위치해 있던 이곳은 광산김씨·전주이씨·풍양조씨·김해김씨, 의령남씨 등의 세거지로 전주이씨가 대성을 이루었다.

일제 때는 서당(書堂)이 있었을 만큼 교육열이 높았으며, 신도시건설 때 장차 폐동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산우물의 정취는 간직하자며 마을의 유지나 마을의 모습 등을 필립에 담아 앨범집을 만들었다고 한다. 폐동 때(1987)에는 20여 호 남짓했던 산우물은 신도시개발에 따라 주택지로 변모되어 1989년부터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이곳에는 충신 최정권(崔挺健)의 묘가 있다.

[이영우(李榮雨, 이동 280브리 3-5), 1931. 3. 1]

10. 삼 리(三里)

뒷골 북쪽으로, 현 석호국민학교 주변에 있었던 마을이다.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성곡면 삼리라 칭했던 이곳은 밀양박씨가 배판한 이래 양주최씨·김해김씨 등이 세거했으며, 마을 북쪽지역은 아랫밭, 남쪽지역은 웃밭, 동쪽지역은 한우물이라 각각 불렀다.

이리(二里)와 3리(三里)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삼리’(三里)라 칭했으며, 폐동 때(1979)에는 마을의 호수가 22호였으며, 현재는 택지로 조성되어 1988년부터 민가가 들어섰다.

[박상규(朴商奎, 사동 1167), 1936. 11. 10]

11. 삼 밭(麻田)

조선시대 김광(심유 따위를 가공하여 피복을 할 때 까지의 모든일)의 명산지라 하여 ‘삼밭’(麻田)이라 칭했다고 한다. 분대와 석호 사이에 위치해 있던 이곳은 조선초 연산군 때 최혼(崔

第四篇 地名由來

潭, 봉덕랑역임)이 본대에 낙향해 살다가 그의 넷째 아들인 최홍개(崔弘溉, 증좌승지)가 분가하면서 자리를 잡고 살아 취락이 형성되었다 한다. 그후 홍개의 후손인 양주최씨가 대대로 살아오다가 신도시개발로 1979년 폐동된 후 15호 남짓하던 원주민들은 대부분 석호(대학동)로 이주했으며, 현재는 한양대학교 기숙사가 들어섰다.

폐동 전만해도 마을에서는 이곳 뒷산(高理峯 또는 高樓峯) 정상에서 해마다 음력 10월16일에 산신제를 지냈다.

고리봉 정상 바위틈에는 마을에서 위하는 향나무가 한그루 있었는데, 일제 때 어느 교인이 자기 집 정원에 옮겨 심으려다가 극쟁이·삼 등이 부러지곤해 나무에 손을 내지 못하다가 한국전쟁 후 군인들이 부대장의 명령으로 나무를 베려는데 갑자기 불이 부러지기는 했으나 결국엔 베었는데, 이들 군인들이 귀로중 군포와 안양사이에서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했다고 한다.

(최남규(崔南圭, 고잔2동 주공APT 7-201), 1915. 11. 5)

12. 샘 골(泉谷)

삼리 서쪽으로, 현 월드컵아트 서쪽에 있던 마을이다. 이곳은 샘이 많이나는 곳이라 하여 '샘골'[泉谷]이라 칭했다고 하며, 일제 때는 화성군 반월면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마을 샘우물의 수질이 제일 우수했다고 한다.

샘골은 조선조 말엽에 남양홍씨 문희공파(文熙公派) 23세손인 홍의경(洪義卿, 자는 三龍)이 처음으로 세거한 이래 그의 후손인 남양홍씨가 대대로 살아 폐동 때(1979)는 40여호 중 절반이 남양홍씨였을 만큼 홍씨의 집성촌이었다.

이 마을은 신도시개발 전 반월면에서는 기독교(감리교)가 최초로 전래된 곳이기도 하다. 현존하고 있는 천곡교회(泉谷教會)는 샘골의 첫 입주자인 홍의경의 아들 원삼(元三: 1867. 8. 18~1945. 11. 26, 묘가 안산시 사동 36에 있고, 부인은 남원양씨이며 슬하에 천유(1919년생)·백유(1923년생)가 있음)이 1907년 7월 안산시 사동63 김정태(金正泰) 소유의 땅을 빌어 6칸짜리 예배당을 지은 것이 그 시초이다. 그후 1931년 최용신(崔容信)이 농촌계몽운동 지도자로 부임하면서 내외에 널리 알려졌다.

(홍천유(洪千裕, 고잔2동 주공APT 408-1303), 1919. 3. 9)

13. 석 호(石湖)

뒷골 서쪽으로, 현재 한양대학교가 들어 선 곳이다. 이 마을은 한양대 초입에서 구라 사이에 있는 산에 천차돌(천돌박이라 칭함)이 많이 박혀 있는 데다가,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바닷물이 이곳까지 들어왔다고 하여 차돌에서 석(石)자를 취하고, 바다에서 호(湖)자를 취해 '석호'(石湖)라 불렀다고 한다.

석호마을은 양주최씨·김해김씨 등의 세거지로 폐동 때(1979)는 27호가 있었으며, 석호국민학

교도 이곳에 있었다가 신도시개발로 삼리로 이전되었고, 현재는 택지로 조성되어 대학동으로 통칭되고 있다.

[최만규(崔晩圭, 사동 1154-6), 1919. 10. 29]

14. 승지골(承旨谷)

삼밭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 중엽에 좌승지(左承旨)를 역임하고 퇴임, 낙향해 살다가 이 마을에 묻힌 최홍개(崔弘濼)의 관직명을 따서 '승지골'〔承旨谷〕이라 부르고 있다. 이 마을에 최초로 산 사람은 수원시 읍전동 출신인 엄석주(嚴錫柱)로 알려졌으며, 그는 일제 중엽에 이곳에서 염소를 비롯하여 닭·거위·돼지·소 등을 기르며 살았고, 그후 그의 집안인 엄석원을 거쳐 이창훈·이경훈 등이 세거했다.

[최종관(崔鍾寬, 사동 1151-5), 1939. 3. 25]

15. 초 당(草堂)

감자골과 긴곳 사이에 있었던 마을로 억새·병대쑥·꿩등골 등 풀이 많았던 곳인데 분대·장화·감지골 등지에 살던 최훈의 후손(양주최씨)들이 분가를 하면서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폐동 때(1979)는 6집 모두가 양주최씨였을 만큼 최씨촌이었다. 신도시개발에 따라 현재 택지로 조성되었다. 마을에서는 삼밭 뒷산(고리봉)에서 해마다 음력 10월 16일에 산신제를 지냈다.

[최동규(崔東圭, 사동 1151-5), 1916. 12. 6]

16. 향가울(杭湖)

이곳에 처음으로 취락이 형성되었을 때에는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이웃 마을과 왕래를 하려면 배를 이용했다고 하여 '향가울'〔杭湖 또는 향갈〕이라 불렀다고 한다. 분대와 긴곳 사이에 있던 향가울은 초당·분대·긴곳·삼밭 등과 더불어 양주최씨가 배편한 마을로, 서북쪽지역을 웃말, 남쪽지역을 아랫말이라 각각 칭했으며, 폐동 때(1979)에는 24호가 있었다가 신도시개발로 주택지로 조성되었다.

마을에서는 폐동 전만 해도 삼밭 뒤에 있는 고리봉에서 해마다 음력 10월 16일 산신제를 지냈다.

[최용식(崔用植, 사동 1167-17), 1924. 9. 15]

第 17 節 本五洞

조선시대에는 평주군 성곡면 본오리(廣州郡 聲串面 本五里)와 분오리(分五里)라 했다가, 1906

第四篇 地名由來

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에 따라 안산군 성곶면 본오리(安山郡 聲串面 本五里)와 분오리(分五里)로 되었으며,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수원군 반월면 본오리(水原郡 半月面 本五里)로 개칭되었고, 그후 1949년 6월 15일 대통령령 제161호에 따라 화성군 반월면 본오리(華城郡 半月面 本五里)로 불리었다.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호에 의거 안산시 본오동(安山市 本五洞)으로 되었다.

본오동은 조선시대 성곶면의 행정구역울 조정할 때 1리~4리는 쉽게 마을명칭이 결정되었으나, 배웃 주민들과 선암동(仙岩洞, 오목골) 주민들은 서로 이해가 엇갈려 배웃은 본오리로, 선암동은 분오리로 나뉘어 불리우다가 1914년 부군을 통합하면서 본오리를 흡수해 본오리로 되었고, 시제가 실시되면서 '본오동'(本五洞)으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본오동은 신도시건설로 대부분의 지역이 폐동되었고, 현재는 택지 등으로 조성되었는데, 폐동전 본오동의 자연취락은 다음과 같다.

- ① 각골[角谷] ② 배웃[梨湖] ③ 오목골[楸木洞] ④ 염전 ⑤ 작은반월[小半月]

1. 각 골[角谷]

풍수로 보아 소(牛)가 누워있는 와우혈(臥牛穴)이므로 '각골'(角谷)이라 불렀다고 한다. 일설에는 마을 동쪽에 있는 산이 코끼리 형상이라 하여 상봉(象峯)이라 칭했는데 그후 마을 이름도 산봉을 따 상촌(象村)이라 했다고 한다. 또 전주이씨 가승에는 '가골'[佳谷]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각골은 오목골 동쪽으로, 신안주씨를 비롯하여 전주이씨·순흥안씨 등 55호가 있었는데 동쪽 지역은 웃말, 서쪽지역은 아랫말, 북쪽지역은 집너머 또는 웃각골(上角谷)이라 각각 불렀다. 1985년 신도시계획에 따라 폐동되자 원주민들은 대부분 본오동으로 이주했고, 현재는 주택지로 조성되어 1988년부터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월 15일 경이면 길일을 택하여 마을내에 있는 3개의 대동우물에서 소머리를 놓고 마을의 연로한 노인중 부정타지 않고 행실이 바른 사람을 제관으로 선정해 마을의 안정과 풍년·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정제(井祭)를 지냈다.

[주병두(朱柄斗, 본오동 676-5), 1922. 3. 18]

[이병화(李丙和, 본오동 667-2), 1938. 3. 22]

2. 배 웃[梨湖]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성곶면 본오리(安山郡 聲串面 本五里)라 했고, 맛살과 염밭(소금)으로 유명했던 마을이다. 조선중엽 이 마을 동쪽 연안에 배가 들어왔다 하여 '배웃'(梨湖)이라 칭했으며 포구는 '이호포'(梨湖浦)라 불렀다.

신도시개발 이전에는 호수가 103호로 화성군 반월면 판내 자연취락중 가장 컸던 마을로, 마을

북쪽지역을 옷달, 서남쪽지역을 아랫밭, 동남쪽지역을 동끝, 동북쪽지역을 우종굴이라 각각 불렀으며, 광복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서는 옷달 소제 대동우물에서 해마다 7월 초에 길일을 택해서 정제(井祭)를 지냈다.

오목골 서쪽에 있던 배웃은 1986년에 폐동되어 원주민들은 본오동·수원·인천·안양·구반월 등지로 분산 이주했으며, 현재 택지로 조성되어 있고, 일부는 수리안전담으로 남아있다.

[이홍재(李弘載, 본오동 822), 1921. 5. 15]

3. 오목굴(梧木洞)

본래의 위락명은 이 마을 남쪽에 있는 산에 신선이 놀던 바위 이름을 붙여 신선동(神仙洞)이라 칭했는데, 그후 조선말엽에 인동장씨 후손이 자기집 숲타리 뒤에 오동나무가 있다는 연유로 ‘오목동’(梧木洞)으로 개칭했으며 그 오동나무는 일제강점 말엽까지 있었다고 한다.

오목골은 배웃 서쪽으로,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성곶면 분오리(安山郡 聲串面 分五里)라 불렀으며, 인동장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이래 영천이씨·김해김씨·파평윤씨 등이 세거했고, 1946년 4월 1일 이곳에 본오국민학교가 생기면서 호수가 급격히 늘어 폐동 때(1985)는 60여호가 있었다가 신도시개발로 원주민들은 대부분 본오동·수원 등지로 분산 이주했다.

[윤태성(尹泰聲, 본오동 86-11), 1913. 12. 12]

4. 염 전(鹽田)

사동 한가울 동남쪽에 있던 마을로 한국전쟁 직후 인천출신 이준성(李俊成)이 이곳에 염전을 만들고 염부(鹽夫)을 위한 염부사(鹽夫舍)를 건립하면서 위락이 이루어졌다. 한 때는 20여호가 있을 만큼 취락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1982년 이준성이 염전을 매각한 후 이곳이 농경지로 변모되자 주민 또한 점차 외지로 나가 현재는 민가 1호가 있을 뿐이다.

[이홍재(李弘載, 본오동 822), 1921. 5. 15]

5. 작은반월(小半月)

예전에 화성군 반월면 관내에서 팔곡동 담너머마을을 큰반월(大半月)이라 칭한데 반하여 이 마을이 담너머보다 호수가 적다하여 ‘작은반월’[小半月]이라 부른다고 한다.

본래는 화성군 매송면 월리와 본오동 경계(현재 농경지)에 살다가 이곳이 지대가 높을 뿐 아니라 식수도 좋지 않아 조선말엽에 담너머 서쪽인 현재의 위치로 이주했다. 광주이씨·제씨 등 67호가 살던 작은 반월은 마을 동쪽지역을 옷달, 서쪽지역을 아랫밭, 마을중앙을 가운뎃밭이라 각각 칭했다가 신도시개발로 1986년 폐동되어 원주민들은 대부분 본오동·수원·남양·인천 등지로 분산 이주했으며, 현재는 안산시 외곽도로에 편입되었고, 일부는 시설녹지로 되어 있어 옛 작은반월의 정취는 찾아 볼 수가 없을 만큼 크게 변모되었다.

[이용덕(李容德, 본오동 676-5), 1922. 3. 18]

第 18 節 八谷二洞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북방면 팔곡이리(廣州郡 北方面 八谷二里)라 했다가,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에 따라 안산군 북방면 팔곡2리(安山郡 北方面 八谷二里)로 되었으며,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수원군 반월면 팔곡2리(水原郡 半月面 八谷二里)로 개칭되었고, 그후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1호에 따라 화성군 반월면 팔곡2리(華城郡 半月面 八谷二里)로 불리웠으며,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의거 안산시 팔곡이동(安山市 八谷二洞)으로 되었다.

팔곡이동은 수리산 남쪽 기슭에 8개의 골짜기 안에 위치해 있으므로 동명이 유래되었고, 신도시개발로 마을의 모습이 변모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① 담너머(澗園)와 ② 셋골(閭谷) 등의 자연취락이 있고, 팔곡1리는 화성군 반월면에 속해 있다.

1. 담너머(澗園)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북방면 팔곡2리(安山郡 北方面 八谷二里)라 칭했던 마을로, 본오동 작은 반월보다 큰마을이라하여 ‘큰반월’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은 셋골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셋골에서 이 마을을 가자면 셋골 남쪽에 동·서로 길게 늘어져 있는 쪽박산 능선을 넘어야 갈 수 있으므로 ‘담너머’(澗園)라 칭하고 있으며, 마을 서쪽지역을 공밭(또는 웃밭), 동북쪽지역을 아랫밭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담너머는 광주이씨가 배판한 이래 신안주씨·전주이씨 등이 세거해 현재는 광주이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마을에서는 마을뒤에 있는 당봉(堂峯) 정상에 당집을 짓고 당제(堂祭)를 지내다가, 본오동을 왕래하던 주민들이 마을 앞을 가자면 말굽이 붙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크므로, 현재는 셋골 뒷산에서 셋골 및 화성군 반월면 팔곡1리 우묵골(井洞), 건건리 주민들과 함께 해마다 음력 10월 1일에 당제를 지내고 있다.

[주만동(朱萬東, 팔곡이동 420), 1920. 2. 6]

2. 셋 골(閭谷)

담너머와 화성군 반월면 팔곡1리 우묵골(井洞) 사이에 위치해 있어 ‘셋골’(閭谷)이라 부르며, 일명 새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셋골은 마을 서쪽지역을 웃밭, 동쪽지역을 아랫밭이라 각각 칭하고 있다. 이곳에 취락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기는 조선중엽에 평택임씨가 배판한 후부터이며, 그후 해주오씨·원주변씨·김해김씨·경주김씨 등이 세거해 현재는 평택임씨와 해주오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1일에 셋골 뒷산에서 당제(堂祭)를 지내고 있다.

[임철호(林哲鎬, 팔곡이동 369), 1907. 2. 6]

[김계태(金葵泰, 팔곡이동 365), 1917. 11. 25]

<李 承 彦>